



원

VOL.08_2024

MAPAL HITECO GROUP MAGAZINE

ORIGINAL SPIRIT
NEW TECHNOLOGY
ENVIRONMENTAL MANAGEMENT

MAPAL HITECO GROUP MAGAZINE

VOL.08_2024



CO²



MAPAL HITE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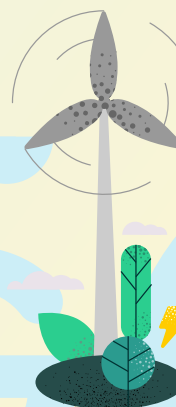
MAPAL HITECO

HITECO

NLT

TAMS

CEAS



원

VOL.08_2024
MAPAL HiTECO GROUP MAGAZINE

cover story



마팔하이테크는 지난해 ESG 경영을 선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기 위한 노력, 탄소중립 Net-Zero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발행일 2024년 11월 1일 (통권 제8호)

발행처 (주)마팔하이테크

발행인 박주석

주소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24로 27

기획 및 담당 이주현 매니저 (영업기획팀)

편집 및 제작 누만다+누만자



10



04 CEO MESSAGE

Special Theme

- 08 ESG는 지금
전 지구적 움직임, 탄소 배출 감축
- 10 우리가 애쓰지(ESG)
Let's Do it! 탄소 발자국 줄이기
- 12 특별한 만남
마팔하이테크 창원영업소 엄세웅 소장
다준테크 정병학 대표의 만남
- 16 세계는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탄소 감축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아름다운 노력
- 18 One DNA
탄소 중립과 넷제로에 관한 너의 생각이 궁금해!
- 20 이심진심
함께라면 힘쓰는 일도 어렵지 않아요!

One INSIDE

- 22 우리팀 최고
우주최강 팀워크로 생산 밀바탕을 꼼꼼하게
디자인하다_설계팀
- 26 만나고 싶었어요
뜨거운 열정과 패기로 뭉쳤다!
2024 마팔하이테크 공채 9기
- 30 새로운 도전
자외선 살균 램프, illuBio
- 32 해피투어
2024 해외법인 모범사원 한국 초청 행사

CONTENTS

One ZOOM IN

- 36 글로벌 통신
미국에 한국인의 저력과 HiTECO의 명예를 드높이다
미주 사업부 G-HiTECO
- 40 테크트렌드
현대적이고 지능화된 전력 시스템, 스마트그리드
- 42 우리가 만드는 세상
동료와 주고받는 대화에서도 정확하게
우리 말, 제대로 쓰자!

One TOGETHER

- 44 News
마팔하이테크 및 그룹사 뉴스
- 50 우수사원
여러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2023년 우수사원 및 우수 팀 수상자
- 52 Special Day
사내 주요행사
- 56 슬기로운 직장생활
'No!'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올바른 거절의 기술
- 58 마음을 전해요
고마운 마음이 도착했어요!
- 60 북큐레이션
사람을 성장시키는 토양, 겸손
책에서 겸손을 배우다
- 62 One Summer Day
아름다운 우리 여름
2024 하이테크그룹 여름 포토 콘테스트
- 66 사랑방 소식
신규 입사자 소식
- 67 참여마당
따뜻한 말 한마디 메시지 카드 & 웃음時조



MAPAL HiTECO

CEO MESSAGE



마팔하이테크 및 하이테크그룹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팔하이테크 대표이사 박희종입니다.

창립 33주년을 맞이해 경영진을 대신하여 임직원 여러분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좋은 날을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마팔하이테크의 33년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정을 다한 임직원 여러분이 이뤄낸
값진 결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꾸던 2024년은 지금과 같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세계는 각 나라들의 전쟁과 힘겨루기로 평화를 이루지 못했으며,
다양한 문제들로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팔하이테크 및 하이테크그룹은 격변하는 시대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잘 성장해 왔으며,
끊임없는 도전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여러분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두되는 ESG 규제에도 마팔하이테크는 이미 고객과 직원,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기본을 지켜왔기에 문제없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앞으로도 회사의 성장과 우리의 성장에 함께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사회적 가치 실행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건강과 밝은 미래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팔하이테크 대표이사

박희종

왼쪽부터
박희종 대표이사
박주석 회장
박성종 부사장

Special Theme

NET-ZERO

- 08-09 ESG는 지금
- 10-11 우리가 애쓰지(ESG)
- 12-15 특별한 만남
- 16-17 세계는 지금
- 18-19 One DNA
- 20 이심진심

탄소 중립 Net-Zero

흘러가는 시간에 언제나 화답하는 계절의 변화
아름다운 사계절을 만끽하는 기쁨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요?
지구의 기후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풍요롭고 편리해질수록 지구는 점점 뜨거워졌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폭염과 혹한 같은 기후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기후 위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마팔하이테크는 지난해 ESG 경영을 선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운영 중일 뿐만 아니라
폐기물 절감과 재활용을 통해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마팔하이테크는 안전한 기후, 아름다운 지구 안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희망해봅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기 위한 노력,
탄소중립 Net-Zero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전 지구적 움직임

탄소 배출 감축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10년이 관건이고,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고탄소 업종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 걸쳐 대대적인 전환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산업이 탄소 고배출 산업군의 비중이 높은 제조업 중심이라 기업의 감축 노력은 기후 위기 대응에 큰 영향을 끼친다.

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흐름은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기업들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현지 규제당국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 대응은 커녕 관련 정보를 얻는 것마저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또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피력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의 관건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부가 2020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후,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는 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산업 전환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책만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산업 전환을 견인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산업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 예산이 절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최근 1년 사이 주요국에서 발표한 산업 전환을 위한 기후 위기 대응 기금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인다. 2023년에 독일 정부는 기후 및 전환 기금(KTF) 규모를 2,120억 유로(약 308조 원)로 확정했다. 같은 해 일본 정부는 산업구조 전환 이니셔티브(GX, 녹색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 혁신 기금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150조 엔(약 1,365조 원)이 넘는 GX 투자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올해 한국 정부의 기후 대응 기금 총액은 지난해의 2조 4,867억 원에서 949억 원이 삭감된 2조 3,918억 원이다. 이는 산업 전환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를 포괄한 기금이다.

중소·중견 기업의 탄소중립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비단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대기업에 비해 정보도 자원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국제 사회의 탄소 배출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수출 기업의 대부분인 중소·중견 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심할 경우 해외 기업과의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국가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중견 기업의 ESG 경영활동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마팔하이테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탄소 배출 감축에 힘쓰고 있다. 회사 유희부지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임대,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SBTi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법인차량으로 저공해 및 무공해차(전기·수소차)도 꾸준히 늘리고 있기에 이러한 마팔하이테크의 시도들은 다른 중소·중견 기업의 선례가 될 것이다.

탄소중립은 도전적인 목표이고, 끊임없이 변수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전 지구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약속임은 틀림없다.

탄소중립과 넷제로 같은 뜻일까?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되는 탄소를 흡수(포집, 제거, 재활용 또는 저장)하여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의 양을 같게 만들어 탄소의 순 배출을 0으로 맞추는 것이다. 넷제로(Net Zero)는 지구 기후 후에 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의 배출과 흡수가 균형에 이른 상태를 말한다. 탄소중립은 모든 온실가스의 순 배출을 제로화한다는 개념인 넷제로와 혼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탄소중립에서는 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배출·흡수의 대상으로 보고, 넷제로는 온실가스 전체의 균형을 말한다. 넷제로가 좀 더 엄격한 규제라 할 수 있다.

탄소 배출 규제는 점점 더 강해진다

세계 경제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탄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할 환경 점수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프랑스에서 먼 지역의 전기차일수록 운송 거리가 길어 보조금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것이 관건이다.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세계 각국의 업체들이 현지에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하게 만들었다. 유럽연합(EU)도 2026년부터 철강·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한다. 미국 역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하게 탄소 배출량에 따라 무역 관세를 부과하는 청정경쟁법(CCA) 도입을 추진 중이다. 철강·알루

Let's Do it!

탄소 발자국 줄이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상생활 속 우리의 사소한 행동과 습관이 끊임없이 탄소 발자국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습관, 탄소 발자국을 줄일 방법을 알아본다.

오늘 당신의 탄소 발자국은 몇 걸음인가?

'탄소 발자국'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총량의 표시 방법으로, 2006년 영국에서 최초로 제안하고 사용된 개념이다. 제품을 만들고 유통, 사용, 폐기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탄소 발자국으로 표시하는 데서 유래했다.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커지면서 그 원인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에는 일상생활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우리의 행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됐다. 즉, 탄소 발자국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국가와 기업을 넘어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도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는 노력이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자신의 발자국을 되돌아보며 탄소배출 줄이기에 동참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STEP 1. 오프라인에서 탄소 발자국 줄이기

걷기, 자전거 타기의 생활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6월 말 기준 2,613만 대를 넘어섰다. 인구 1.96 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과 이산화탄소다. 승용차 한 대가 1km 달릴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약 210g인데 반해 버스는 27.7g, 지하철은 1.53g이니 일주일에 한 번만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연간 469.6kg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적정 실내 온도 유지하기
냉·난방기를 효율적으로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전력 사용량을 줄여 탄소 발자국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냉난방 온도를 1°C만 조절해도 연간 720억 원의 비용 절감과 71.4kg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억제할 수 있다. 실내 적정온도를 조절해 여름에는 25~28°C, 겨울에는 18~20°C로 설정해 생활해 보자. 여름에는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고, 겨울에는 단열재를 설치해 열 손실을 줄이면 더 큰 도움이 된다.

국산 식재료, 제철 음식 섭취하기
'푸드 마일(Food Miles)'은 먹거리가 생산자의 손을 떠나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 거리를 뜻한다. 푸드 마일을 운송량(t) × 운송 거리(km)로 계산한 수치를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데, 마일리지 가 클수록 먼 지역에서 수입한 식품이며,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입 식품이 늘어날수록 푸드 마일리지 또한 계속 증가하므로 되도록 국산 식재료, 제철 음식을 소비하는 것이 탄소 발자국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STEP 2. 온라인에서 탄소 발자국 줄이기

메일함 정리하기
하루에도 수십 통씩 쌓이는 전자우편. 이메일 한 통이 온실가스를 무려 4g이나 내보낸다니, 데이터를 정리하는 사소한 행위도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일조한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삭제하지 않은 스팸메일을 보관하기 위해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증설하는 데 매년 330억 kW의 전력을 낭비하고 연간 1,7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한다. 읽지 않은 메일은 정리하고, 오래된 메일은 삭제하는 습관을 기른다.



스트리밍 대신 '다운로드'하기
OTT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감상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문제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엄청난 양의 트래픽이 필요하고, 이는 많은 양의 데이터와 전력 소모로 이어진다는 것. 한 사람이 하루에 동영상 시청 시간을 10분만 줄이면 연간 193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니, 스트리밍 시간을 조금만 줄이거나 영화나 음악을 미리 다운로드해 이용하는 루틴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전자제품 오래 사용하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태블릿 같은 소형 기기부터 냉장고, 세탁기, 냉난방 기기 등 대형 가전까지 오늘날 우리는 전자제품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이런 전자제품의 제작·유통·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스마트폰 하나를 만드는 데 발생하는 탄소가 10년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양과 비슷하다고 한다. 따라서 전자제품을 잘 관리하고 오래 사용하는 것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잊지 말자!

NET ZERO

마팔하이테크와 다준테크는

공동운명체, 상생 파트너로 '윈윈'

마팔하이테크 창원영업소 엄세웅 소장과
다준테크 정병학 대표의 만남

12

둘 이상이 서로 복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 상생(相生)의 사전적 의미이다. 마팔하이테크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부터 비즈니스 파트너를 본사로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마팔하이테크 파트너십'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마팔하이테크의 성장이 곧 파트너사의 경쟁력. 다준테크의 정병학 대표를 만나 마팔하이테크와 다준테크의 아름다운 상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엄세웅
소장

정병학
대표

엄세웅 소장 대표님, 안녕하세요! 마팔하이테크 가족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정병학 대표 안녕하세요! 다준테크의 정병학입니다. 2012년에 지금의 다준테크를 설립해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부품사들과 공구 제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상시 거래하는 업체는 (주)화신을 비롯해 덴소코리아(주), 신우 등 50여 개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저를 포함해 5명이 근무하는데, 일당백의 마음가짐으로 영업에 임한 덕분에 지난해에는 24억 원의 매출을, 올해는 30억 원 달성을 예상합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 자부해요. 저는 '고객사에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토탈 툴링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원칙을 지켜온 덕분에 수많은 경쟁사를 제치고 13년의 업력을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엄세웅 소장 대표님께서 오랜 시간 마팔하이테크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계십니다. 대표님께서 바라보는 마팔하이테크는 어떤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정병학 대표 저도 1999년부터 2012년까지 마팔하이테크에서 근무했습니다. 30대 후반에 입사해 50세에 퇴직했으니, 제 인생의 황금기를 마팔하이테크와 함께한 셈이지요. 마팔하이테크를 통해 변화와 도전의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영업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 눈뜨게 됐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제조라인을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가장 먼저 보는 건 설비예요. 투자비 전체의 70~80%는 설비, 공구는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제조라인이 구축되면 장비, 소재 등은 어렵지만, 공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공구만이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 회사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절삭공구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마팔하이테크는 국내의 TMS(Tool Management Service) 사업을 통해 공구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공구 산업 발전에 견인차 구실을 한 기업입니다. 독일의 기술력과 한국의 근면, 성실한 인프라가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한 결과라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다준테크와 마팔하이테크를 따로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마팔하이테크는 저에게 경쟁력이자 자부심이니깐요.





임세웅 소장 다준테크가 설립된 지 벌써 13년이 흘렀습니다. 다준테크 설립부터 지켜왔기에 저 또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다준테크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정병학 대표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기술력과 성실함에 있다고 봅니다. 고객사에서 라인 설계를 의뢰하면 전체 투자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제안합니다. 전체 투자 규모는 낮추되, 그 안에서 적정선의 공구비를 제안하는 거죠. 경쟁 우위가 되기 위해서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려 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고객이 먼저 다준테크를 찾습니다. 고객이 조연을 구하고, 견적을 요청하면 그 프로젝트는 성사될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정확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해요.

임세웅 소장 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준테크의 2024년은 어떠셨어요?

정병학 대표 지난해 대비 20% 정도 매출이 늘었으니, 만족합니다. 올해 H社의 기존 양산라인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투자비를 최소화하는 솔루션을 제시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주받아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의 원가 절감에 큰 힘이 되었고, 고객의 무한한 신뢰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덕분에 내년에는 미국 공장의 프로젝트도 추가 수주 예상합니다. 내년 매출의 일부가 확보된 것도 기쁘지만, 고객사 내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받아 보람을 느낍니다. 마팔하이테크 창원영업소의 전폭적인 지원도 한몫했지요.

임세웅 소장 다준테크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공구를 다뤄오셨는데, 대표님이 보는 마팔하이테크 제품은 어떠한가요?

정병학 대표 우리 회사가 다루는 공구 제품 중 마팔하이테크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주문 제작 공구, 스페셜 공구에 있어서 마팔하이테크의 기술력과 품질은 세계 최고입니다. 마팔하이테크 제품은 러닝코스트 경쟁력이 뛰어나요. 절삭 정확도가 높고, 절삭 시간을 줄이는 이점을 지니고 있지요. 판매업체에 자신감을 더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임세웅 소장 대표님과 마팔하이테크의 점점인 창원영업소의 파트너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창원영업소의 발전을 위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정병학 대표 창원영업소 직원들은 센스가 남달라요. 부탁하면 언제나 바로 답이 나옵니다. 고객은 자신의 진급과 업무 성과에 보람이 되는 이와 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창원영업소 직원들은 간지러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솔루션을 제시하지요. 임세웅 소장과 함께 일한지도 십 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은 친동생이나 다름없어요.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가 믿음직스럽고, 새로운 기술과 업계 트렌드에 관해서도 많이 알려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세웅 소장 마팔하이테크는 ESG 경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ESG 경영에 있어 '상생'의 가치도 중요한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상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병학 대표 마팔하이테크와 다준테크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지요. 마팔하이테크는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고, 우리 회사는 마팔하이테크와 고객의 가교라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의 목표를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어요. 마팔하이테크라는 뿌리가 있어야만 더 많은 가치를 치고,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객에게 '우리 회사는 5명이 일하지만, 20명이 일하는 규모의 회사와 동등한 맨파워를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마팔하이테크 창원영업소가 있으니까요. 이런 게 바로 아름다운 상생, 아닐까요?

임세웅 소장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정병학 대표 사회 전 분야의 숙제가 세대 전환이라고 하는데, 저 또한 그동안 기계공업인으로 습득한 기술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계가공업이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산업으로 영속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순이 넘는 지금도 신기술을 공부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이어 갈 다음 세대의 성장을 돕기 위해 행동으로 옮겨볼 생각입니다.

“
마팔하이테크는 공구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고, 우리 회사는 마팔하이테크와 고객의 가교라 생각합니다.
마팔하이테크라는 뿌리가 있어야만 더 많은 가치를 치고, 뻗어나갈 수 있지요. 한 방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든든한 동반자라 할 수 있습니다.”

MAPAL HITECO + 2024 VOL.8



임세웅 소장이 본 정병학 대표는?

“정병학 대표님을 생각하면 ‘박학다식’이란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절삭가공 분야에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다방면으로 경험이 많은 분이십니다. 저도 업무에 관한 고민이 생길 때면 가장 먼저 조연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우리 영업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하시지만, 오히려 저희가 배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을 뵈 때마다 항상 저의 부족함을 느끼며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순이 넘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 못지않은 노력과 열정에 감탄하며 인생 선배로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분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탄소 감축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아름답다 2024년 노력



지구의 온도가 2°C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상승 온도를 1.5°C로 제한할 수 있게 되면 생물의 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C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 세계가 탄소 배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 힘쓰고 있다. '탄소배출 제로'에 도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행보를 살펴보자.

애플 | Apple

애플은 2030년까지 전체 가치 사슬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애플 2030' 계획을 수립해 주요 제품인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16에서는 50% 재활용 소재로 제작된 M3 칩 탑재 배터리를 사용, 아이폰 15와 맥북 프로 16에는 100% 재활용 구리를 사용한 주요 열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애플워치와 애플 비전 프로는 섬유 기반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였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공기 필터를 설치해 매년 25톤(t)의 필터가 쓰레기 매립지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 특히 애플은 전 공급망에 걸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지난해에만 20억 킬로와트(kW)시 이상의 전력을 절약했다.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로, 총 17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기여했다.

아마존 | amazon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미국 내 가장 큰 재생에너지 구매 기업이기도 하다. 아마존은 204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기후 서약을 강도 높게 이행 중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센터, 패키징, 제품 및 서비스, 건물 건설 및 운영, 배송 및 물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아마존 당일 배송 센터가 북미 최초로 탄소 제로 인증을 받았다. 아마존은 이미 2022년에 전체 소비 전력의 90%를 재생에너지로 통해 공급했고, 2030년까지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5년 단축해 2025년에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아스트라제네카 | AstraZeneca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는 2015년 RE100*에 가입했으며, 사업 운영 및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6년까지 98%로 줄이고,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인 뒤 2045년 90%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억 달러를 투자해 2030년까지 세계에 나무 2억 그루 이상을 심고 6개 대륙 약 10만 헥타르(1천 km²)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숲'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볼보 | VOLVO

2040년까지 순환 비즈니스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수립한 볼보자동차는 철강, 알루미늄과 같이 배기가스 배출량이 높은 소재의 재제조 및 수리, 재사용, 재정비를 위한 폐쇄형 루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자동차의 부품을 자사 또는 공급업체가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개발, 제조하는 것이다. 볼보자동차는 이미 소재 활용도를 높이고,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어박스 및 엔진 부품의 재제조를 실행 중이다. 2020년에는 약 4만 개의 부품을 재제조하여 약 3천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 바 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최초로 해상 화물 운송에 화석 연료 대신 재생 연료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5만 5,000톤까지 즉시 감축할 수 있으며, 앞으로 모든 부품 유통에 재생 연료를 확대 사용할 계획이다.

넷플릭스 | NETFLIX

OTT 플랫폼 넷플릭스는 3R(Reduce-Retain-Remove)을 중심으로 '넷제로+네이처(Net Zero+Nature)' 정책을 실행 중이다. Reduce는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45% 감축하는 것이고, Retain은 자연의 탄소 저장 능력을 보존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며, Remove는 자연 생태계 재건에 투자함으로써 대기 중 탄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영화와 시리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제작 작업에서 사용하는 디젤 발전기 대신 그리드 전력을 늘리고, 출연자와 스태프의 항공 여행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 관리를 위해 2021년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항공 서비스 구매자 협회를 공동 설립했다.

스타벅스 | Starbucks

스타벅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물 사용량, 매립지 폐기물을 50%로 줄이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 '그리너 스토어 프레임워크'를 세계자연기금(WWF)과 공동 개발했다. 그리너 스토어(Greener Store)는 스타벅스의 지속가능성 목표 실현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저감, 재활용 제품 사용 전략 등을 도입한 녹색 매장이다.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2,317개 매장을 그리너 스토어로 운영 중인데, 전 세계 지점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공급망도 녹색화한다. 이미 농가에 토양 관리 모바일 앱을 보급하고 조림 사업을 시행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인 '탄소중립 커피'를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카스벨리 로스팅 공장과 유통센터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3분의 1을 태양광 시설로 충당하고, 전기차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관련 정책도 실행하고 있다.

탄소 중립과 넷제로에 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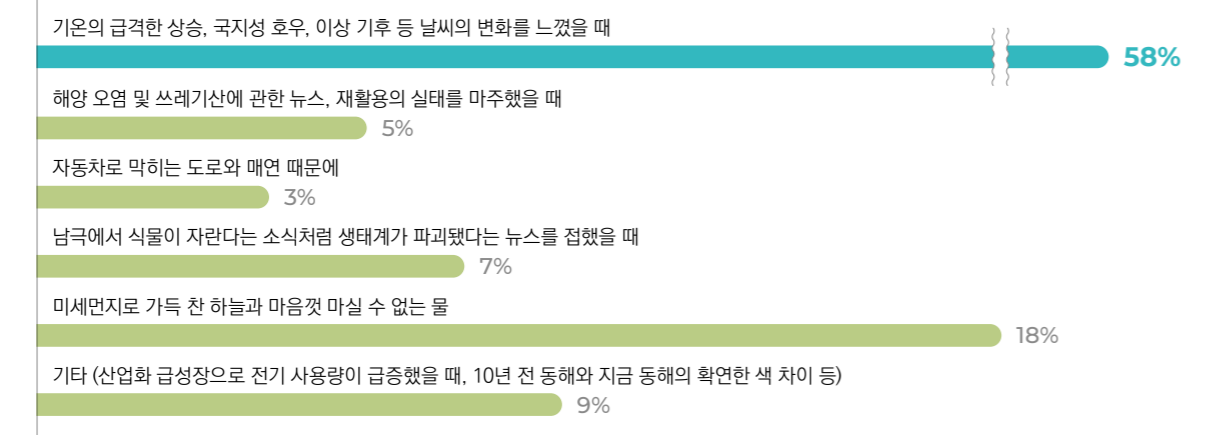
너의 생각이 궁금해!

지구온난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탄소중립'과 '넷제로'에 대한 관심과 캠페인도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마팔하이테크는 ESG 비전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Net-Zero 실현에 앞장설 것을 선포한 바 있다. 마팔하이테크인들은 '탄소 중립'과 '넷제로'에 관해 어떤 관점과 의견을 지니고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환경에 대한 생각과 나만의 그런 라이프에 대하여 동료들의 생각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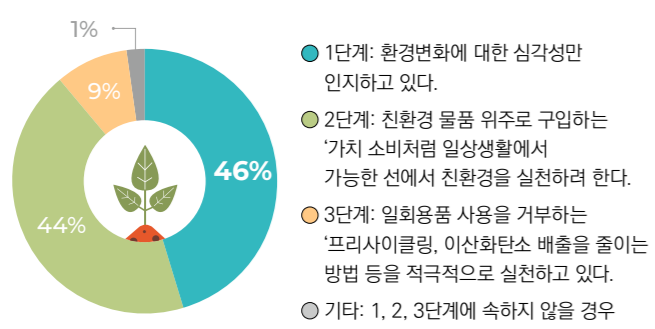


설문조사 기간
(2024년 8월 27일~ 9월 13일, 총 157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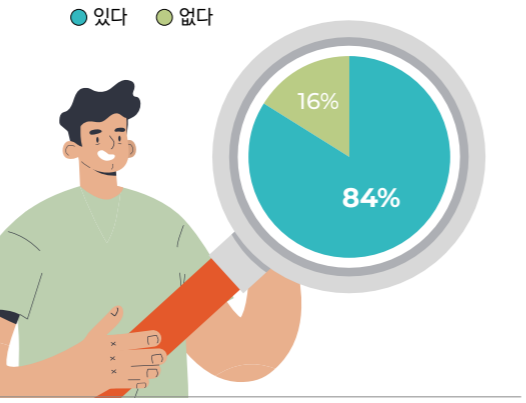
1 과거에 비해 환경이 오염된 것을 가장 실감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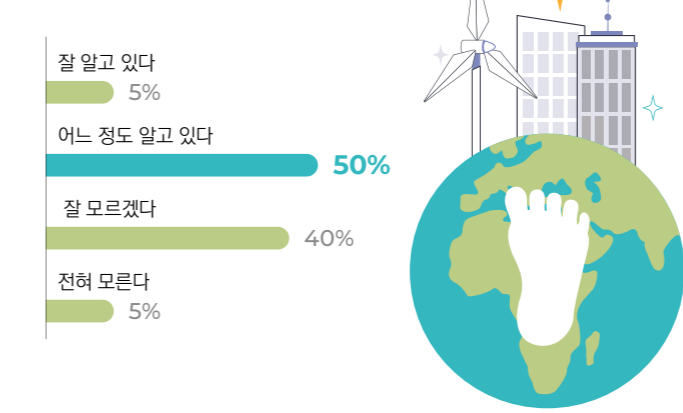
2 내가 생각하는 나의 친환경 레벨은 어느 정도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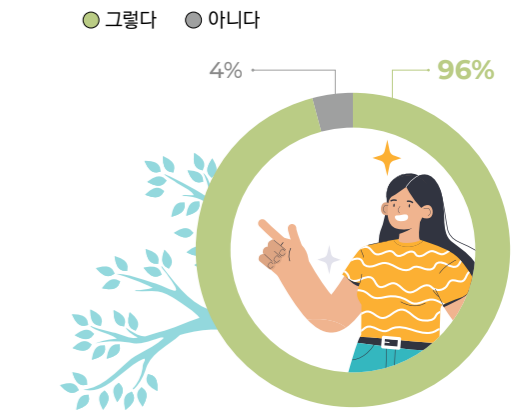
3 탄소중립과 넷제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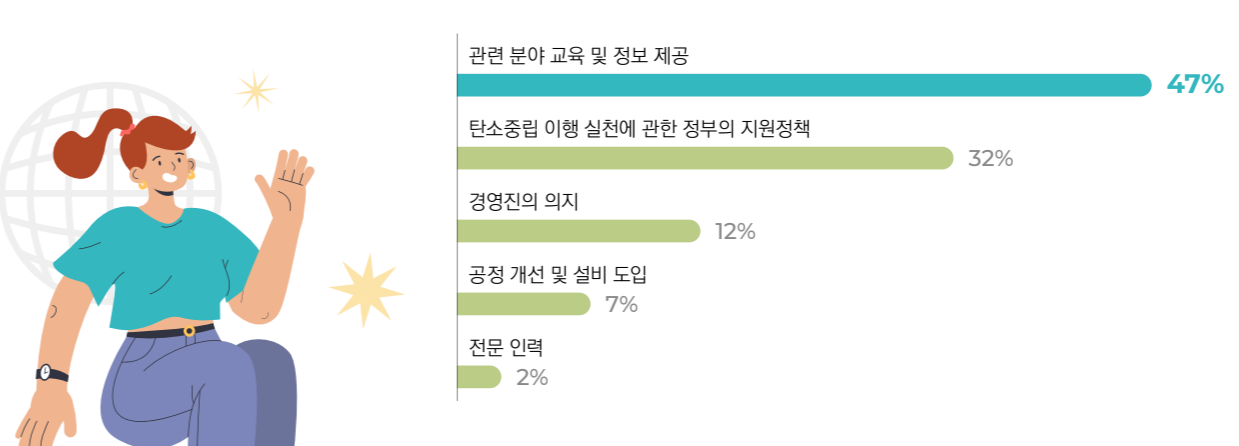
4 탄소중립과 넷제로의 의미, 차이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요?



5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에 관하여 개인도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6 우리 회사가 탄소중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7 탄소중립과 넷제로에 관하여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불필요한 이메일 용량 줄이기**
울산영업소 정수민 책임매니저
- 냉난방 권장 온도 준수하기,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제품 사용**
설계팀 이선준 책임매니저
- 친환경 제품 사용**
기술영업1팀 왕주영 이사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들고 뺐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기
개발영업팀 박해준 매니저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종이 없는 회의 등**
SE2팀 전창호 매니저
- 텀블러 사용, 모바일·전자 영수증 사용**
회계팀 이불경 매니저
-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불필요한 전기 사용 줄이기**
경인영업소 백승우 매니저
- 재활용의 생활화**
구매팀 김기철 책임매니저
- 불필요한 소비 자제, 음식 남기지 않기 등**
IT운영팀 정수민

많은 마팔하이테크인들이 이와 유사한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심진심

마팔하이테크는 이웃과 함께 울고 웃으며, 땀과 눈물을 나누는 일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박주석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20명이 지난 4월 20일 오랜만에 명휘원을 찾았다. 명휘원은 2016년부터 마팔하이테크와 소중한 인연을 이어온 곳인데,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은 이곳을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봄처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마팔하이테크 임직원이 소매를 걷어붙인 그날을 들여다보자.

함께라면 힘쓰는 일도 어렵지 않아요!



명휘원은 마팔하이테크 임직원이 일 년에 두 번은 꼭 찾아가 봉사를 펼치는 곳. 장애인 거주시설이라 장애인과 함께하기 위한 봉사 요청이 주를 이루는데 비닐하우스와 운동장 까지 그 규모가 적지 않아 명휘원을 운영하는 인력만으로는 힘을 써야 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녹록지 않다. 그래서 마팔하이테크 임직원은 명휘원 청소를 담당하기로 했다. 전날 내린 비로 배수로와 쉼터, 운동장 곳곳에 젖은 낙엽이 가득, 시작부터 만만치 않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스피드! 임직원들은 삼으로, 손으로 쉼 없이 낙엽과 쓰레기를 날렸다. 열심히 움직여 땀을 흘리니, 뿌듯함도 느껴지고 복잡했던 머리도 가벼워지는 듯하다. 늦잠으로 순간에 삭제될 뻔한 토요일을 알차게 보낸 덕분에 힘들게 흘린 땀의 가치가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명휘원에 마팔하이테크는 더없이 반갑고 귀한 손길이다.



One INSIDE

마팔하이테크와 그룹사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22-25 우리팀 최고

26-29 만나고 싶었어요

30-31 새로운 도전

32-34 해피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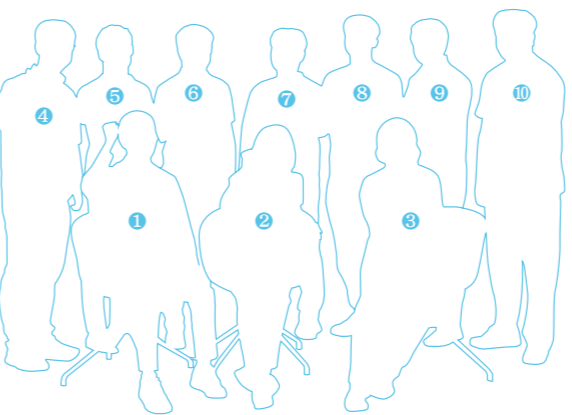




우주최강 팀워크로 생산 밑바탕을 꼼꼼하게 디자인하다

설계팀

설계는 설계자 개인의 특성이 반영되는 작업이다. 가이드라인이 있을지라도 개인의 성향과 경험치, 설계 제품의 예민함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설계 도면이 나오기 마련. 그러나 설계팀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를 표준화하여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집념과 도전으로 똘똘 뭉친 설계팀 직원들을 만나보자.



- ① 주정환 책임연구원
- ② 윤정현 팀장(책임연구원)
- ③ 오윤정 연구원
- ④ 김경진 책임연구원
- ⑤ 이선준 책임연구원
- ⑥ 최민철 책임연구원
- ⑦ 송준영 책임연구원
- ⑧ 정원중 연구원
- ⑨ 홍남기 책임연구원
- ⑩ 송현규 연구원

설계 능력과 소통의 힘까지 탑재한 프로 일잘러들
설계팀이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마팔하이테크가 제작하는 스페셜절삭공구를 설계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공구를 개발하는, 개발설계이다. “설계팀은 영업을 통해 접수된 절삭공구를 생산본부에서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면을 디자인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우리 회사가 제작할 수 있는 형상을 구체화하고, 최적화된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첫 단계를 책임집니다.”
윤정현 팀장은 프로페셔널한 설계 능력은 기본. 많은 부서와 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 부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고, 타 부서에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이러한 DNA를 갖춘 프로 일잘러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설계팀이라며 팀원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집념과 도전이 만들어낸 발전
설계팀의 2023년은 어땠을까. ‘계란으로 바위를 부술 수 있다’는 집념이 빛을 발한 해였다. 전사 차원에서 요구된 Digital Transformation에 맞춰 설계팀은 2021년 하반기부터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을 외부개발업체와 함께 진행했는데, 지난해에는 설계팀이 자체적으로 연구, 학습한 것이다.
“생산본부에서 제작하는 다수의 공구는 요구되는 정밀도가 까다롭고 기하 공차의 규제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탠다드 공구로는 최적화하기가 어렵고, 가공 형상에 맞게 특별하게 디자인해야 해요. 업무 특성상 표준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동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팀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기준점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팀은 개발공구의 내부 테스트도 강화했다. 생산본부에서 제작한 공구가 현장에서 어떤 성능을 내는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발팀을 통해 개발되는 공구로 내부 테스트를 실행해 가공 결과를 확인하고, 개선할 점을 학습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여갔다. 함께 고민하고, 실패를 극복했기에 더욱 가치 있고, 뜻깊은 경험이 었다.



MAPAL HITECO + 2024 VOL.8

협업과 배려의 아름다운 하모니

설계팀은 대다수의 팀원들이 7~8년을 함께한 덕분에 가족보다 더 친하다. 다른 부서도 설계팀의 확확한 분위기는 최고라고 인정할 정도란다.

“점심은 물론 저녁도 매우 자주 같이 먹습니다. 주말에 같이 캠핑이나 낚시를 즐기기도 하고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며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이라서 팀원들 모두 ‘나’보다 ‘우리’에 더 가치를 두는 것 같아요. 팀원들이 스스로 업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업무가 과잉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해결합니다. 우리 사무실에는 칸막이가 없어요. 개방된 구조 덕분에 회의 시간을 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업무에 관한 이야기부터 일상, 고민까지 수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점점 더 커집니다.”

성실과 근면은 기본값으로 세팅되어 있고, 협동심과 배려심까지 더해졌으니, 아름다운 하모니 그 자체다.

“**설계팀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우리 회사가 제작할 수 있는 형상을 구체화하고, 최적화된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첫 단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설계 최적화와 마팔하이테크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근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자동차 내연기관의 생산이 감축되는 추세라 설계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마팔하이테크는 내연기관의 부품을 가공하는 절삭공구 제조기업이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산수주설계파트는 접수되는 수주에 대해 오류 없이 약속된 기간에 정확하게 도면을 출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경 쓰고,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설계파트는 마팔하이테크의 새 시장을 열어줄 아이템을 탄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힘써왔다. 올해 설계팀의 목표가 ‘제품군의 다양화’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내실에 변화가 더해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팀에서는 초경공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강용 드릴 및 소경 드릴에 대한 개발 및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에도 힘 쓰고 있습니다.”

윤정현 팀장은 설계 표준화를 강화하여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종종 영업소를 통해 샘플 공구의 성능과 양산 공구의 성능 차이에 대한 불만을 전달받는다. 같은 도면으로 같은 작업자가 같은 장비로 생산해도 품질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럴지라도 설계팀은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찾아 이를 데이터화하여 개선해나갈 것이다. 설계팀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리드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One INSIDE

MAPAL HITECO + 2024 VOL.8



윤정현 팀장(책임연구원)

- ① 손가락, 손목 통증은 언제나 내 친구!
- ② 분위기는 자유롭되, 업무는 공평하게! 그래야 몸도 마음도 편안해요! 여러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김경진 책임연구원

- ① 설계와 집중력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오후 업무를 위해 점심 후 낮잠은 필수!
- ② 한 사람이 열하면 누군가는 그만큼 더해야 하는 법. 나보다 우리를 먼저 떠올리고, 배려하면서 일하자고요! 파이팅!



홍남기 책임연구원

- ① 낮에는 다른 부서와 협업하는 일들 처리하느라 바쁘고, 늦은 오후나 저녁이 되어야 설계의 바다에 빠져들 수 있어 점점 더 야간형 인간이 되고 있어요.
- ② 우리 팀 모두 잘하고 있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설계팀의 원동력은 한 팀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선준 책임연구원

- ① 옵션값, 단축키 설정값 등 프로그램 세팅, 최적화에 자꾸 집착하게 됩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모두 다크 모드로! 내 눈은 소중한니까요.
- ② 평일에 하루 중일 붙어있는데 주말에도 같이 놀러 다닐 만큼 우리 팀원들이 제일 재미있어요. 설계팀이 최고예요!



주정환 책임연구원

- ① 온라인게임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퇴근 후 컴퓨터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 ② 요즘 집에서도 일 생각하는 팀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퇴근 후에는 스위치를 내리고, 자기 자신을 더 신경 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설계팀, 여러분이 궁금해요!

- ① 설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루틴이나 직업병이 있다면?
- ② 우리 팀원들에게 한마디!



최민철 책임연구원

- ① 설계는 철저하고 확인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는 일이라 '루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제 루틴입니다.
- ② 십 년 넘게 얼굴 보고 지내다 보니 친하게 정들었어요. 지금까지 회사에 다닐 수 있었던 건 다 팀원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특별하고 고마워요.



송준영 책임연구원

- ① 그 누구보다 배치가 흐트러져 있거나 선이 어긋나있는 걸 쉽게 발견해요.
- ② 요즘 설계팀에 아픈 사람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송현규 연구원

- ① 선을 보면 도면이 떠오르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으로 자꾸 설계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 ② 팀원들과 주주미 낚시를 갈 예정이라 설레는 요즘이에요. 시간아, 빨리 흘러라!



정원중 연구원

- ① 우리 팀 모두 앓는 손목 통증! 그래서 헬스장에 가면 손목 보호에 더 집착하게 됐어요.
- ②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어서 선배님들에게 양해와 배려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열심히 배워 오겠습니다!



오윤정 연구원

- ① 설계팀에 합류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아직은 없어요.
- ②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열정과

열정과 패기로 뚝뚝 뚫은 새 얼굴이 나타났다.
각자의 출신도, 분야도 모두 다르지만, 마팔하이테크를 향한
뜨거운 애정만큼은 모두 하나인 그들. 새로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반짝반짝 눈부신 공채 9기들을 만나보자.



One INSIDE

패기로 뚫었다!

2024 마팔하이테크 공채 9기

마팔하이테크가 올 초 2017년 이후 7년 만에 공개 채용을 실시했다. 이번 공개 채용은 9번째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입과 경력사원의 지원서를 신청받아 면접을 거쳐 5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했으며, 이들은 4개 부서에 배치되었다. 3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채 9기를 대상으로 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각자의 멘토를 통해 회사의 문화와 업무 프로세스,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등을 배울 수 있었다. '공채 9기'라는 공통 분모를 발판 삼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마팔하이테크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로 성장해 나갈 내일이 기대된다.



공통 질문

- 1 나의 MBTI는?
- 2 마팔하이테크인이 되기 전의 활동은?
- 3 채용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 4 마팔하이테크인이 되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 5 회사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멋지게 마팔하이테크를 알릴 수 있는 인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성민 책임매니저 영업기획팀

- 1 명랑하고 느긋하며 상식이 뛰어나고 손과 도구에 능숙한 ISTP입니다. 조직 생활에 가장 적합한 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 2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후 디자인회사에서 시각 디자인 업무를 하다가 건설기계 제조회사로 이직해 10년 정도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마팔하이테크와 비슷한 점도 많은 회사였기에 적응하기 어렵지 않을 거로 생각했어요.
- 3 면접을 볼 때 총 4명이 들어갔는데, 2명은 신입, 2명은 경력이었어요. 면접관이 디자인과 홍보 업무에 관해 질문했어요. 이전 회사에서 전시부터 홍보, 마케팅까지 전담해 온 경력 덕분에 면접자 중 가장 완성도 있는 대답을 내놓을 수 있었답니다. 면접관의 질문을 기다릴 만큼 당시의 분위기를 즐겼던 것 같아요.
- 4 마팔하이테크는 사보를 발행하는 것부터 MT나 워크숍, 창립기념일 행사 등 직원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놀라웠습니다.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아닐지라도 조직문화를 단단하게 만들고자 하는 회장님과 대표이사님의 의지가 느껴졌어요. 사내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 간에 사이가 좋아서 협조가 잘 되는 점 또한 인상적이었어요. SIMTOS는 영업팀, 기획팀 등 유관부서의 협조가 꼭 필요한 프로젝트였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감사한 마음과 부딪힘을 함께 느꼈습니다.
- 5 우리 회사의 마케팅 규모와 영역을 넓혀나가고 싶습니다. SNS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것을 비롯해 브랜드 리뉴얼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어요. 마팔하이테크와 그룹사 통합홈페이지, 홍보영상 등을 업데이트하는 프로젝트를 기획 중입니다. 마팔하이테크를 가장 잘 이해하고, 멋지게 우리 회사를 알릴 수 있는, 마팔하이테크에 잘 스며든 인재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

이성민





양진영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지닌 개발영업인이 되겠습니다!

양진영 매니저 개발영업팀

- 1 저는 명랑하기 보다는 내성적인 성향이 강한 ISTP입니다.
- 2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올해 2월에 졸업했습니다. 생산-제조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졸업하자마자 마팔하이테크에 입사하게 되어서 저와 가족 모두 기뻐했습니다.
- 3 마팔하이테크가 독일계 공구회사라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라는 걸 느껴서 꼭 합격하고 싶었습니다. 면접에서 대표님께서 입사하면 회사에 얼마나 다닐 것 같은지를 물으셨는데, 제가 되려 마팔하이테크의 정년을 여쭙봤어요. 65세라고 하시길래 제 나이를 뺀 만큼 근무하겠다고 대답했더니, 면접관님 모두 웃으셨던 게 기억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면접이 진행되어서 긴장하지 않고, 기분 좋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 4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부터 전화 받는 것까지 쉽지 않았어요. 입사 초기엔 '이 일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개발영업팀의 가족적인 분위기와 선배님들의 배려 덕분에 외향적인 양진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직 분위기를 주도할 만큼은 아니지만, 책임매니저님과 현장에 나가고, 고객과 소통하면서 도전해 불만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타고난 성향도 변화시키는 개발영업팀의 동료애와 화목함이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습니다.
- 5 개발영업팀원으로 일하면서 보람을 발견해 나가는 중입니다. 입사 초기의 양진영과 지금의 양진영은 분명 다릅니다. 이 정도의 발전 속도라면 내년에는 개발영업팀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재로 한 뼉 더 성장하지 않을까요? 출근 첫날 선배님들이 목표를 물어보셨어요. "마팔하이테크에서 법인 자동차로 그런저를 탈 수 있는 직급까지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지닌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함께 일해보고 싶은 인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백승우 매니저 경인영업소

- 1 대담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리더십 기질이 강한 ENTJ입니다.
- 2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외국계 반도체 회사에서 장비 설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 조율부터 고객사 제품 시연, 기술 영업 등을 수행했는데, 영업에 매력을 느꼈어요. 제가 설계한 제품이 매출로 이어지는 순간을 마주할 수 있다는 데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기술영업을 해보고 싶어 퇴사한 후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다가 마팔하이테크에 경력직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 3 합격 소식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하고, 긴 공백 없이 취업하게 되어서 안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장비 설계 경험을 통해 도면을 해석하고, 이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면접 때 어필한 덕분에 합격한 게 아닐까 싶어요.
- 4 경인영업소 소속이 된 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경인영업소는 경기-인천지역의 업체 관리부터 납품, 견적 발주 등 전방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라 영업인으로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처음에는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선배님들이 제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살짝게 챙겨주셨어요. 제 멘토인 이두겸 책임매니저님이 고객사에도 자주 데려가 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빨리 적응했습니다. 타 부서와 친근하게 지내는 회사 분위기도 마팔하이테크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 5 경인영업소의 일원으로 영업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인계받은 업체들을 잘 관리하면서 신규 업체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일을 잘하는 직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부서에서든 '나도 백승우 매니저랑 같이 일해보고 싶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능력과 에너지를 지닌 인재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백승우



One INSIDE

MAPAL HITECO + 2024 VOL.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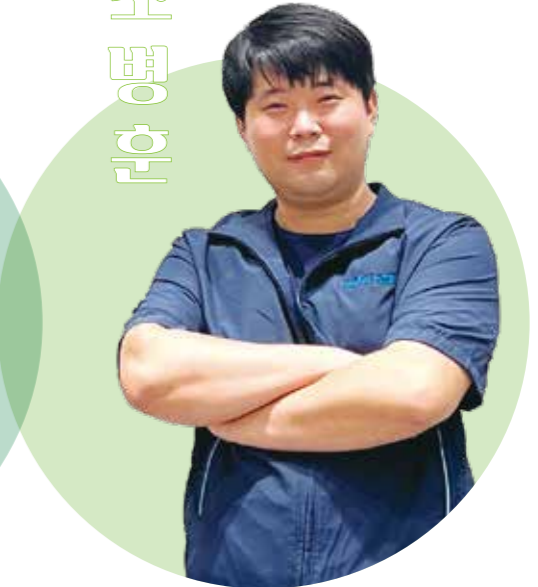
이창중

T/O팀의 팔방미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창중 매니저 T/O팀

- 1 사실적이고 관대하며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ESTP입니다. 어디서든 적응을 잘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유형이었는데, 많이 공감합니다.
- 2 이전에 가공 일을 하면서 여러 브랜드의 공구들을 사용했습니다. 마팔하이테크의 공구도 다루본 적 있어 회사가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가공일을 한 경험 덕분에인지 공구회사에서 가공사업까지 수행한다는 것부터 매력 만점인 회사라 생각했습니다.
- 3 함께 면접을 치른 동갑내기 동기, 소병훈 매니저와 T/O팀 일원이 되어서 든든하고, 전 직장의 인수인계 문제 때문에 동기들처럼 3월부터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개인 사정 때문인데도 일정을 조율해주신 마팔하이테크의 배려가 기억에 남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인간적이고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다시 한번 인사담당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4 지난 7월에 멕시코로 출장을 다녀온 일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T/O팀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가공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폐가 되지 않고 잘 끝낼 수 있을지 걱정이 컸는데 함께 간 전승환 책임매니저님과 정재호 책임매니저님이 많이 가르쳐주신 덕분에 무사히 끝내고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T/O팀의 매력이 배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5 가공 업무는 기본이고, T/O팀의 수행업무 전체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팔방미인이 되고 싶습니다.

소병훈



차곡차곡 저축하듯 능력을 쌓겠습니다!

소병훈 매니저 T/O팀

- 1 강한 집중력과 현실 감각을 지닌 ISTJ입니다. 제 지인들은 저를 보고 'I가 아니라 E에 가깝다'고 합니다. I와 E가 공존하는 성향인가 봅니다.^^
- 2 대학교 졸업 후 지금과 비슷한 일을 하다가 2022년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취업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고, 마팔하이테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 3 입사 지원부터 첫 출근까지 한 달 동안 이뤄졌어요.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 마팔하이테크에 대해 찾아봤는데, 중소기업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중견기업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복리후생이 우수했고, 여러 그룹 계열사가 있어서 조직적이고 규모에 있어서도 예상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 4 면접을 위해 본사에 처음 방문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깔끔하고 멋진 사옥을 보고 이 회사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나 봅니다. 막연한 동경이 실현되어서 '마팔하이테크 소병훈 매니저'라고 적힌 명함을 받은 순간에도 뭘 뜻이 기뻐기에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의 행복은 잊지 못해요.
- 5 제가 소속한 T/O팀에는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팀장님을 비롯해 책임매니저님과 매니저님들까지 모두 전문성이 뛰어나세요. 누가 되지 않도록 1년 안에 모든 업무를 습득하는 것이 단기 목표입니다. 차곡차곡 능력을 쌓아 회사가 인정하는 마팔하이테크인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도전

MAPAL New 자외선 살균 램프

illuBio

우리 회사는 올해 말 illuBio 출시를 앞두고 있다. illuBio란 자외선을 활용한 살균 램프와 LED 램프가 결합된 제품으로 가정과 공장, 건물 등에 많이 사용되는 7인치의 천장 매립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출시되는 대로 본격적인 영업, 판매가 이어질 illuBio에 대해 알아보자.



글. 이정훈 팀장 B2X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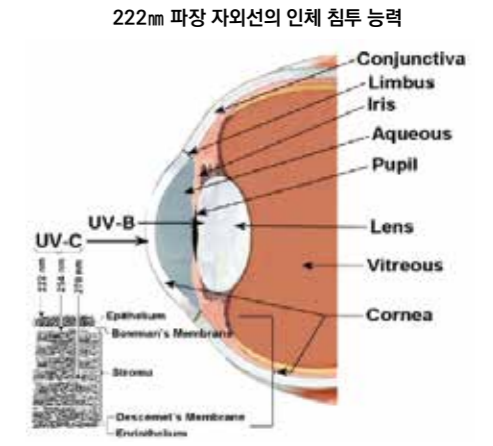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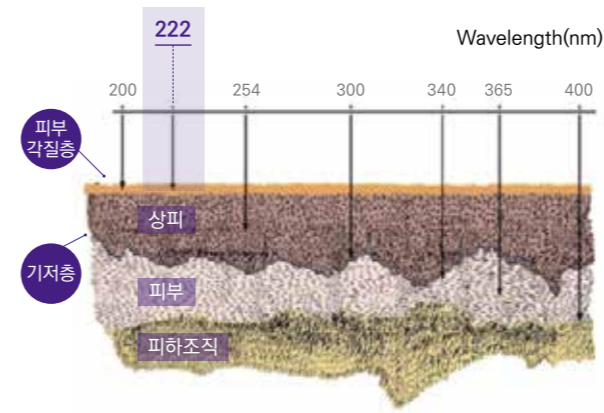


222nm Far-UVC Downlight

자외선이란 100~400nm 파장 영역의 빛으로 DNA의 분자구조를 파괴 또는 변형시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세균을 죽이거나 생리적 기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자외선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침대 살균 청소기, 핸드폰 살균기 등과 같은 제품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 활동을 할 때는 선크림과 같은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를 보호해야 하고, 자외선을 활용한 제품들도 자외선 램프를 눈으로 보거나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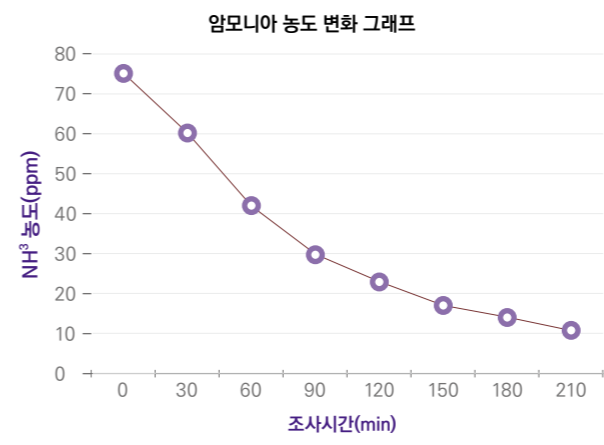
* 사람은 가시광선(400~780nm 파장) 영역만 볼 수 있다. 가시광선 파장영역을 380~780nm로 소개하는 자료도 볼 수 있는데, 이는 가시광선이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으로 정의되어 일부 사람은 380~400nm 영역의 빛을 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지구 오존층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280nm 파장 이하의 자외선은 모두 차단한다.



또 다른 자외선의 특징은 파장이 짧을수록 보유 에너지가 커지는 반면에 인체에 침투하는 능력은 감소한다. 우리가 접하는 대다수의 자외선 관련 제품의 파장은 254nm 또는 280nm로 인체의 피부 기저층 또는 피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 그러나 illuBio는 우리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필터를 통해 222nm 파장 외 다른 파장은 모두 차단하는 제품이다. 222nm 파장 자외선은 피부의 각질층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 이것은 여러 대학 연구기관에서 실험을 통해 증명된 결과이고, 우리 연구진도 국내 대학교와 협업하여 동물실험을 통해 222nm 파장의 자외선이 무해하다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

illuBio는 타사 제품보다 짧은 파장에 기인한 큰 살균-소독 에너지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곰팡이도 박멸할 수 있고, 화학성 악취를 유발하는 암모니아 가스의 농도도 저하시킬 수 있다. 아울러 illuBio는 40W의 자외선 램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W 미만의 램프를 사용하는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살균-소독에 필요한 시간도 짧아지는 장점이 있다. 사스(SARS)와 조류독감을 거쳐 코로나19까지 우리는 지구온난화로 새롭게 생겨나는 바이러스 공포 속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균과 소독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공들여 개발한 제품 판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 회사가 ESG 경영에 힘쓰는 가운데 illuBio는 2차적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제품이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7인치 천장매립형 램프는 illuBio로 손쉽게 교체할 수 있으며, 우리 회사는 고객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응용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스템도 확보한 상태다. illuBio 출시는 우리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절삭가공, 자동차산업과 다른 분야에 진출한다는 것에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의미있는 성장을 이룬다면 자연히 우리 회사의 미래경쟁력도 성장할 것이다. 많은 마팔하이테크인들이 illuBio에 관심을 갖고, 성공적인 영업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더해주시길 기대한다.



illuBio 관련 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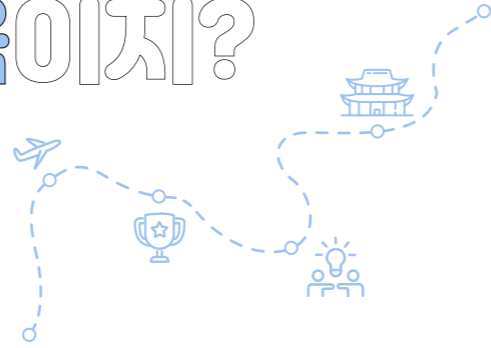


* 미국 콜롬비아 대학 병원 발표 논문
222nm 파장의 자외선이 기존 살균 램프 (254nm 파장 사용)와 동일한 살균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

2024 해외법인 모범사원 한국 초청 행사

지난 9월 1일 반가운 손님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바로 하이테크의 해외 법인 현지 모범사원들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이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하이테크'라는 공통점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MAPAL HiTECO + 2024 VOL.8



1st Course

하이테크그룹의 현재와 미래를 경험하는 것부터

9월 1일 부터 5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된 2024 해외법인 모범사원 한국 초청 행사는 현지 해외법인 모범사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들에게 회사의 비전과 성장 가능성을 공유하며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ROSALIE BAID), 중국(CAI HONGJUN, LIU HUA), 인도(SANTHOSH KUMAR.S, PACHAMUTHU.R), 슬로바키아(MIROSLAV BAKA) 모범사원 7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9월 1일 저녁에 한국에 도착해 공식 일정은 9월 2일부터 시작되었는데, 가장 먼저 본사를 찾았다. 월례 조회 시간을 통해 모범사원 시상식이 진행됐고, 박주석 회장과 임직원들의 환영 인사를 들은 후 본사 곳곳을 둘러보며 하이테크그룹 본사 분위기를 몸소 느껴볼 수 있었다. 모범사원들은 "하이테크그룹의 현재와 미래를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한 시간이 자랑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nd Course

그룹사 방문과 서해의 아름다움을 만끽한 시간

9월 3일에는 아침 일찍 서산으로 향했다. (주)NLT와 (주)하이테크 BST를 방문해 하이테크그룹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그룹사 생산 현장을 둘러보았다. 모범사원들은 현장에서 수시로 기계나 부품에 대해 질문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본사와 그룹사 견학을 통해 하이테크인으로서 자긍심이 배가 됐다.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관광객으로 버전을 바꿔볼 때다. 화성으로 이동해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를 탔다. 제부도 바다 위를 지나는 동안 주변 경관을 사진으로 담으며 한국의 매력에 빠져 들었다.





3rd Course

K-컬처의 매력에 퐁당!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 모범사원 7명은 모두 한국 방문이 처음이다. 외국인들이 필수 관광지로 꼽는 경복궁을 방문해 한국의 옛 전통미에 빠져들었다. 한복을 입고, 궁궐 곳곳을 둘러보는 내내 수다와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평소 K-드라마 팬이라는 로즈는 "TV로 한국을 보면서 직접 한국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가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초청 행사를 통해 그 꿈이 실현됐다"면서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앞으로 더 사랑하게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복궁과 멀지 않은 광화문 광장과 남산 N타워까지 아무지게 둘러본 후 박주석 회장 및 이길태 대표이사과 저녁 만찬을 함께했다. 박주석 회장은 모범사원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해외법인 모범사원 한국 초청 행사를 통해 한국과 하이테크그룹을 진하게 경험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7명의 모범사원. 이들에게 이번 기회가 활력과 자긍심, 성장 에너지를 복돋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



한국을 떠나기 전, 모범사원들의 한 마디

PACHAMUTHU.R 저는 하이테크 TMS 기아차 인도 공장에서 근무 중인 PACHAMUTHU입니다. 2010년에 하이테크에 입사해 TMS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본사 생산본부를 견학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본사에서 접한 최신 기술을 앞으로 고객사에 더 열심히 홍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경험한 시간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회사와 업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AI HONGJUN 저는 중국 TMS 염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범사원 자격으로 한국 본사에 방문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새로운 동료와 친구들을 알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원식 조지아 G-HITECO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범사원으로 한국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ANTHOSH KUMAR.S 사랑하는 하이테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인도 하이테크 TMS 재고관리 업무를 시작하여 지금은 Tool Store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은 매우 흥분되는 경험이었으며, 제 인생에서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이테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SALIE BAID 저는 모범사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해외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박주석 회장과 이길태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사를 방문하고,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환영해 준 모든 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MIROSLAV BAKA 슬로바키아를 대표하는 모범사원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아시아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본사와 가족사를 방문하면서 배운 것을 슬로바키아에 적용하여 업무를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본사를 방문할 기회와 아름다운 나라를 방문할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LIU HUA 저는 중국 TMS 북경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모범사원 자격으로 본사를 방문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가슴이 벅차옵니다. 이번 투어를 함께한 모범사원 및 본사직원들과 본사 직원들과 소통한 시간이 오랜 감동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해외법인 모범사원들의 한국 방문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One INSIDE

One ZOOM IN

마팔하이테크 및 그룹사의 전문 지식과 해외법인 등 다양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36-39 테크놀로지 of 테크놀로지

40-43 Focus

44-47 글로벌 통신

48-49 테크트렌드

50 우리가 만드는 세상



미국에 한국인의 저력과 HiTECO의 명예를 드높이다

미국 기업은 성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경쟁을 통해 성과를 달성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기업들이 혁신과 효율성에 가치를 두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추구한다. 이러한 흐름은 지금의 한국 기업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이에 발맞추기란 쉽지 않을 터. 현지 상황을 묵묵히 극복해 나가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미주 사업부 G-HiTECO를 만나보자.

미주 사업부 G-HiTECO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멋진 사람들

2008년, 3명의 인원으로 시작된 G-HiTECO는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시 현대트랜시스 공장 내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60명의 G-HiTECO 구성원이 현대트랜시스 1, 2공장에서 공구 관리 서비스(TMS)를 중심으로 기어 가공과 보전, USMCA 서브조립라인 운영을 담당한다.

1공장은 조정곤 팀장의 리더로 TMS와 트랜스미션케이스 외관검사, 소재 검사를 실행하고, 2공장은 권영학 이사를 필두로 하여 최대 능력 108UPH 54만 대 규모로 4가지 아이템, 총 24기종을 생산한다. 특히 2공장은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오토미션을 생산하고 있다.

G-HiTECO는 2008년 연 매출 10억 원으로 시작하여 올해 매출 150억 원을 달성,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미주사업부(AMERICA BUSINESS DIVISION), 강동진 법인장은 한국인의 저력과 HiTECO의 경쟁력이 오늘을 이르게 했다고 회상했다.

"G-HiTECO는 2023년 5월 22일부터 외주용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주 법인 내에서는 후발주자로 늦은 편이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은 항상 어렵습니다. 다국적 현지인들과 소통도 어렵고, 사고방식도 달라서 초반에는 작업 보조 장치가 미흡하거나 장비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 3일부터 2교대 근무 형태를 앞당겨 시행하면서 신입사원이 대거 투입되었고, 이에 따라 미숙련, 잦은 이직, 불안정한 근태 등으로 가동률도 저조했지요. 하지만 현장의 리더들이 작업자들과 동고동락하며 협력하는 파트너로 다가가려고 애쓴 덕분에 지금은 일 가동률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고객사의 신뢰도 더 두터워졌지



Gear Product Team



Maintenance Team

요. 묵묵히 미주부 전체 HR 업무를 수행하는 HIST 추원 팀장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안전 최우선, 화합과 소통 그리고 협력'이라는 슬로건을 행동으로 보여준 G-HiTECO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인의 저력으로 극복하고 도전하다

묵묵히 꾸준하게 자리를 지켜온 G-HiTECO도 고난은 있었다.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신입직원이 급증한 변화를 시스템적으로 조직화한다는 것이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현지 직원들을 통솔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에게는 한국인 수준의 애사심이나 품질을 유지하려는 노력, 성실함 등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동진 법인장은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며 업무에 관한 공유는 물론 살아가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데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만 진정한 조직의 화합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서이다. 소통의 힘으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선 덕분이다. 권영학 이사는 주어진 생산량을 초과했을 때의 순간이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단다.

"초과 생산한 것도 부듯한 일이지만, 칭찬과 격려에 멋쩍어하는 현지인들을 보면서 이들을 변하게 만든 우리, 한국인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작은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응원하며 자주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에 G-HiTECO는 언제나 훈훈하다. 멕시코(JH)에서 홀로 고군분투 중인 양병선 법인장, 미주부 MMS 사업을 전체 지휘하는 정남수 팀장과 함께 내년에는 멕시코 사업 확장에 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미주사업부 매출 300억 원 달성'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INFORMATION

▶ AMERICA BUSINESS DI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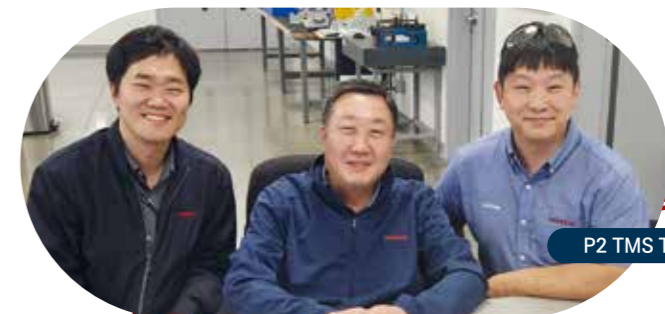


- 설립 시기 2008년
- 구성원 160명 (법인장 1명, 팀장 4명, 책임매니저 5명, 매니저 5명, 인턴 2명, 현지인 143명)
- 생산 품목 T/M CASE, T/M GEAR, USMCA SUB ASSEMBLY
- 위치 6801 Kia Parkway Westpoint, GA 31833, USA

G-HiTECO



USMCA Team



P2 TMS Team



P1 TMS Team

One ZOOM IN

MAPAL HiTECO + 2024 VOL.8

미국 남동부의 활기찬 문화 중심지

애틀랜타 Atlanta

들여다보기



애틀랜타는 G-HITECO가 있는 웨스트포인트시와 한 시간 정도 떨어진 조지아주의 수도이다. 미국 남동부를 대표하는 도시로 역사와 음식, 스포츠 등 다양한 매력을 품고 있다. 현지에서 체류 중인 이진용 팀장의 안내에 따라 애틀랜타를 둘러보자.

글. 이진용 팀장 G-HITECO

아름다운 풍경과 즐길 거리가 가득한 도시

스카이라인이 돋보이는 애틀랜타는 분주하면서도 활기찬 도시이다. 도시 곳곳에 숲이 많다 보니, 녹지가 넓어 풍경이 아름답다. 맛집과 관광지를 비롯해 예술과 즐길 거리도 풍부한 다문화 천국이다. 멈추지 않고 발전하며 재창조를 거듭하는 덕분에 애틀랜타는 미국 내에서도 영향력 있는 도시이며, 여행자에게 호의적인 도시로 유명하다.

애틀랜타는 평범한 대도시가 아닌, 약 45개의 자치구로 이뤄진 도시 지역이다. 예술의 중심지 미드타운을 이루는 피치트리 스트리트(Peachtree Street) 주변 지역은 북쪽의 다운타운에서 몇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곳에 있다. 미드타운은 남동부에서 미술 관련 시설과 기관이 가장 집중된 지역이기도 하다. 비교적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여름은 더욱 덥고, 겨울은 상대적으로 온화한 편이다. 봄과 가을은 쾌적한데, 우리나라 대구, 부산의 날씨와 비슷한 것 같다.



도심에 명소가 모여있어 편리한 관광

애틀랜타를 관광하기에는 도시 중심부의 시내부터 공략하는 것이 좋다. 센테니얼 올림픽 공원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조지아 아쿠아리움, 월드 오브 코카콜라, CNN 본사, 애틀랜타 어린이 박물관, 민권 및 인권센터, 칩펠레 대학 미식축구 명예의 전당을 모두 걸어서 둘러볼 수 있다. 센테니얼 올림픽 공원 뒤편에는 하이 미술관과 애틀랜타 동물원, 애틀랜타 식물원이 자리하고 있어 가족이 관광하기 좋은 도시라 생각한다. 이동 거리가 길지 않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들이 가득해 서이다.

애틀랜타가 여행지로 매력적인 이유는 음식에도 있다. 애틀랜타에는 고급 레스토랑 요리와 남부 음식의 다양한 변주,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세계 요리를 비롯한 다양한 음식이 공존한다. 애틀랜타 음식 문화의 특별함은 다양성이다. 특히 다운타운에서 20분 정도 가면 뷰퍼드 하이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각국의 전통 음식을 만날 수 있어 추천하고 싶은 명소이다.

미국과 중국, 멕시코 그리고 다시 미국. 해외주재원 생활이 어느덧 15년 차에 접어들었다. 높은 물가로 생활이 마냥 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은 아내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둘만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오랜 해외 생활로 가족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건강도 챙기며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다른 방식으로 극복하는 중이다.

애틀랜타는 남북전쟁의 격전이 벌어지고, 시민권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100회 올림픽 대회 개최지로 도시에 얽힌 역사가 풍부한 곳이다. 아울러 마틴 루터 킹과 지미 카터 대통령 등 유명 인물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 여행지로서의 매력이 무궁무진한 곳이라 미국 여행을 계획하는 마팔하이테크인들이 있다면 애틀랜타도 꼭 들려보길 권하고 싶다.

센테니얼 올림픽 공원

칩펠레 대학 미식축구 명예의 전당 (위)
조지아 아쿠아리움(아래)



현대적이고 지능화된 전력 시스템, 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이래 전력산업은 정보기술(IT), 의료, 교통 등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기술혁신이 더딘 부문이었다. 그러나 전력산업이 정보통신 기술과 접목하면서 스마트그리드라는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기료 폭등 및 블랙아웃을 대응할 차세대 기술 중 하나로 스마트그리드를 꼽고 있다. 에너지 소비 행태를 변화시킬 기술, 스마트그리드에 대해 알아보자.

One ZOOM IN



똑똑한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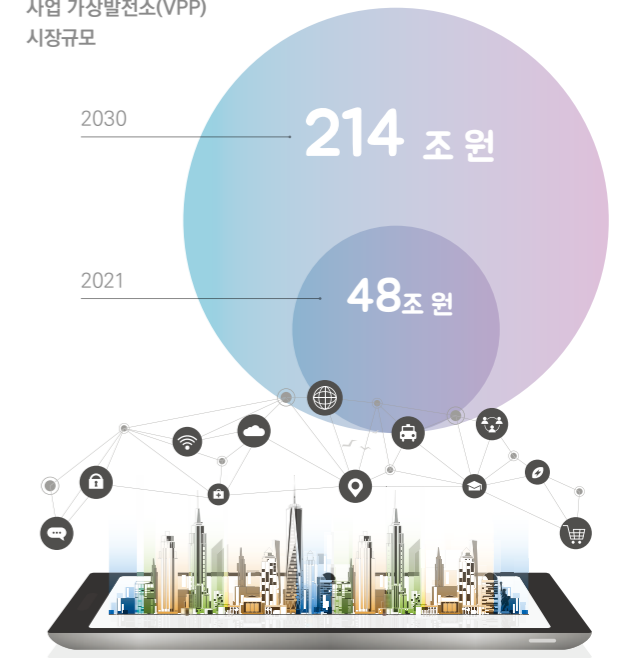
'지능형전력망'이라고 불리는 스마트그리드(smartgrid). 스마트그리드는 말 그대로 기존 전력망보다 똑똑한 전력망을 말한다. 스마트그리드는 대형 발전소 중심의 중앙 집중적인 발전 방식인 한 방향 전력망에 IT 기술과 인공지능(AI),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테크를 접목하는 형태이다.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전기 사용에 대한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전기 사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 공급받는 전기의 가격이나 사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전기의 수요 공급이 발생하는 지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사고를 예측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해도 빠르게 복구가 가능해진다. 전력 체계의 효율을 높여줌으로써 엄청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진다. 한 글로벌 리서처에 따르면 스마트그리드 구축만으로도 추후 경기 4,200만 회 이상을 개최하는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 기술이 필요한 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전력망을 스마트그리드로 바꾸기 위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전력망이 약 100년이 된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 전기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만해도 소규모발전소와 전기회사가 매우 많아 각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했다. 전력 체계가 사업자마다 달라서 어떤 전기제품은 다른 사업자 전력 체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 에디슨의 비서 출신인 사무엘 인설이 분산화된 전력망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규모 발전 형태로 변환하면서 전기를 독점했다. 이는 전 세계의 표준이 되었지만 20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급증한 전기 사용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이다. 화력 발전이 아닌 탄소 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현재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지금의 전력망이 중앙화된 화력 발전 체계에서 갖춰진 형태라는 것에 있다. 전기차 등의 보급으로 전기의 사용량은 더 늘어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원이 다양해지면서 이제는 중앙화된 발전 체계가 아닌 곳곳에 발전소가 설치되는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형태의 발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기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폭염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전 세계 곳곳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력시장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 가상발전소(VPP) 시장규모



프로슈머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 기술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핵심은 '정보교환'이다. 전기 생산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데이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대형 화력 발전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ESS, 전기차 등이 전기를 제공하는 소규모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의 전기 데이터를 취합해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하고 기존의 전력시장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을 가상발전소(VPP)라고 한다. 한국전력과 같은 기존의 전력 유통 사업자는 VPP의 전력과 기존 석탄 및 원전 발전량을 취합해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스마트그리드에서 또 하나의 차이점은 소비자도 전기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로 에너지 빌딩(ZEB)이 의무화되면서 대형 건물에는 자가발전 설비가 들어서게 된다. 각 가정이나 우리 회사와 같은 사업장에서도 현재 태양광과 같은 자가발전설비를 구축한 곳들이 있다. 이들은 사용자이면서 판매자도 된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VPP를 통해 다시 한국전력에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인 만큼 관련 시장 규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1년 360억 달러(한화 48조 원)에서 연평균 18.2% 성장해 2030년에는 약 1,600억 달러(한화 214조 원)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시장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의 투자 및 추진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덕분이다.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더 많은 전기를 소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 새로운 설비투자 기술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들여야 한다. 실제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50년 탄소중립에 있어 재생에너지원 확보보다 에너지 효율 향상이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가 스마트그리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동료와 주고받는 대화에서도 정확하게 우리 말, 제대로 쓰자!



외국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언어를 꼽을 때 자주 언급되는 한국어! 빨간색도 붉은색, 빨강, 붉그스름하다 등 다양한 표현과 언어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물론 한국인도 몰랐던 표준어와 그 유래를 알아본다.

X 드셔보세요

O 들어보세요, 먹어보세요

격식을 갖춰야 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권할 때 주로 쓰는 이 말은 틀린 표현이다. '드셔보세요'에서 드신다는 '들다'에 '-시-'라는 존대어가 들어 있다. '보세요' 역시 '-시-'라는 존대어를 포함한다. '노래 불러보세요', '한 말씀해주셔요'처럼 서술어가 2개 이상 이어질 때는 마지막 서술어만 높이면 된다. 따라서 '들어보세요', '먹어보세요'가 맞는 표현이다.

X 저희 나라

O 우리나라

간혹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나 윗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저희 나라'로 둔갑하곤 한다. 같은 국민끼리는 '우리나라'라고 써야 한다. 외국인들을 상대로 우리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을까? 그렇지 않다. 국가나 민족은 대등한 관계이므로 굳이 자기 나라 민족을 낮출 필요가 없다.

X 커피 나오셨습니다

O 커피 나왔습니다

요즘 카페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 커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객체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 손님을 높히려는 것이 잘못 변형된 사례로, '커피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X 윗사람에게 수고하세요

O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만 직장 상사나 윗사람에게 사용하면 실례다. '수고'의 사전적 의미는 '일하느라 힘을 들이고 애를 씀. 또는 그런 어려움'이다. 따라서 윗사람이나 연장자, 상사에게 전할 때 '남아서 더 고생하세요'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이나 통상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문장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단, 택시나 버스에서 내릴 때 (연장자인)기사에게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다. 택시나 버스를 타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일종의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X 부장님, 이 과장님께서는 거래처에 갔습니다

O 부장님, 이 과장님은 거래처에 가셨습니다

부장에게 과장에 대해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윗사람에 관해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하지 말고 '-시-'를 넣어 말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구어체에서는 존칭 조사 '께서'가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이를 종합한 예시로 대리가 과장에 관한 내용을 사장에게 말할 때 "사장님, 이 과장님은 거래처에 가셨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One ZOOM IN

One TOGETHER

● 마팔하이테크 및 그룹사 뉴스와 다양한 행사 및 소식, 유익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52-57 News

58-59 우수사원

60-63 Special Day

64-65 슬기로운 직장생활

66-67 마음을 전해요

68-69 북큐레이션

70-73 One Summer Day

74 사랑방 소식

76 참여마당



HITECO GROUP News



방글라데시 해외고용복지부 감사패 수여

마팔하이테크가 2024년 7월 1일 본사 대강당에서 방글라데시 해외고용복지부 산하 BOESL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BOESL은 EPS 프로그램을 통해 방글라데시 근로자를 채용한 마팔하이테크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생산1팀 알람 사원을 통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EPS 프로그램은 한국과 방글라데시 간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마팔하이테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방글라데시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마팔하이테크가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한 것을 인정받은 것으로 마팔하이테크는 앞으로도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고용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 하이테크그룹 임원 워크숍

하이테크그룹은 지난 2023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박주석 회장을 비롯한 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 컨벤션 리조트에서 '2023 하이테크그룹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논의를 통해 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을 뿐만 아니라 임원 간의 우의를 다지며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주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귀중한 주말을 워크숍에 할애한 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발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격려했다. 이번 임원 워크숍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관리자의 역할과 자세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 하이테크그룹의 입지를 굳건하게 다지는 시간이었다.

ESG 경영 교육 실시

지난 2023년 11월 22일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SG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ESG 경영의 내재화와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창석 부회장이 ESG의 등장 배경을 비롯해 기본 개념과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김창석 부회장은 "다양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ESG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ESG는 거부할 수 없는 경영 요소이자 시대 가치"라고 말했다.



One TOGETHER

MAPAL HITECO + 2024 VOL.8



시흥시·베트남 빈중성 투자우뭇시 대표단 마팔하이테크코 방문

시흥시와 우호 교류하는 베트남 빈중성 투자우뭇시 대표단 14명이 2023년 11월 6일 마팔하이테크코를 방문, 교류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흥시와 투자우뭇시 간 우호 교류 추진 협의와 거북섬, 시화호 환경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시흥시 우수기업으로 마팔하이테크가 선정되어 기업 투자 유치 홍보를 위한 사례로 소개되었으며, 시흥시 관계자와 투자우뭇시 대표단이 마팔하이테크 스마트팩토리를 견학했다. 마팔하이테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시흥시와 투자우뭇시 간의 교류 협력이 발전하길 기대한다.



창립 32주년 기념식 개최

마팔하이테크는 2023년 11월 1일 창립 32주년을 맞이하여 본사 대강당에서 박주석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규입사자 소개를 시작으로 장기근속자 포상, ESG 선포식, 박주석 회장의 기념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ESG 선포식이 진행되어 마팔하이테크 ESG 경영 가속화를 공식화하였다. 마팔하이테크 임직원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 힘써 나아갈 것이다.

네팔 연수단 및 세계은행 관계자 방문

2024년 6월 4일 네팔 연수단과 세계은행 관계자가 마팔하이테크코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 지식 협력 단지(GKEDC) 운영단이 GKEDC 국제 협력 주요 과업으로 네팔 세계은행(WB) 사업 연계 직업훈련·고용정책 분야 연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네팔 단원 12명과 세계은행 관계자 5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마팔하이테크의 일 학습 병행 제도에 대한 정책개발과 실행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통합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과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LMIS) 구축 및 활용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이번 방문은 마팔하이테크의 일학습 병행 제도가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진행됐다.

박희중 대표이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회사의 일학습 병행 제도가 네팔의 직업훈련 및 고용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일학습 병행 제도를 통해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회 비즈니스 파트너 초청 세미나

2023년 11월 23일 마팔하이테크가 전국에 있는 파트너 30여 명을 초청하여 '마팔하이테크 비즈니스 파트너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파트너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마팔하이테크 파트너에 대한 자신감을 배가시키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마팔하이테크는 다양한 소통을 통해 파트너와 상생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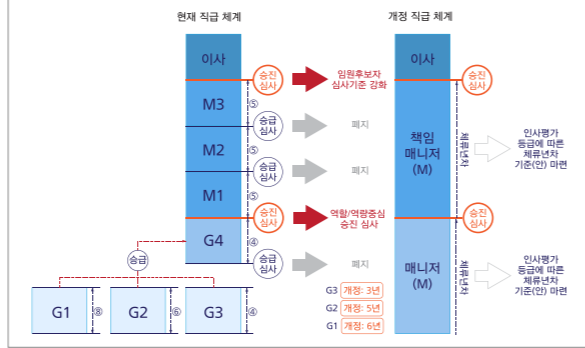
박주석 회장, 한국공대 가족회사 대표 취임

2023년 12월 4일 박주석 회장이 한국공대 가족회사 대표로 취임하였다. 한국공대 가족회사란 한국공대 교원 및 기업체 간 기술과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대학과 기업 간의 맞춤 교육,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산학협력 체제로 현재 4,000여 개의 기업이 함께하고 있다.

박주석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마팔하이테크는 지역 대학과 기업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주체로 힘을 모으는 데 함께할 것이다.



직급 체계 승급/승진 개정(24.1.1일 시행)



2024 직급 체계 개편

마팔하이테크와 하이테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직급 및 호칭 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직급 체계 개편은 하이테크그룹 차원의 기업문화 혁신 활동의 하나로 단계별 승급 심사를 폐지하고 총 2회의 승진 심사로 축소하는 체계 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이테크그룹은 이미 2022년부터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위하여 직원의 호칭도 사원에서 대리까지는 '매니저', 과장부터 부장까지는 '책임매니저'로 통합하였으며, 과장 이상의 책임매니저는 누구나 팀장 보임이 가능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역량을 지닌 인재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역할과 능력에 가치를 두는,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One TOGETHER

MAPAL HITECO + 2024 VOL.8



박주석 회장,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기술지원센터 성과발표회 표창

2023년 12월 12일 박주석 회장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기술지원센터 성과발표회'에서 지역 산업 진흥 공로자로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 행사는 뿌리산업 관련 참여기업의 교류를 통해 시흥기술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이날 행사에는 박주석 회장을 비롯해 연세찬 시흥시 부시장,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과 시흥·경인 지역 뿌리산업 업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마팔하이테크는 100% 수입에 의존하는 대규모·고중량 컨버터하우징 보링공구와 블록 치크 밀링커터 국산화를 위하여 시흥기술지원센터가 보유한 PBF 방식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지원받아 공구 경량화 및 냉각 효과 극대화에 성공하여 실제 양산을 위한 공정 개발, 소재 품질·물성 데이터 확보, 최적 열처리 공정 개발 성공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컨버터하우징 보링공구와 블록 치크 밀링커터 무게는 기존 대비 16%, 31%나 가벼워졌고 이를 통해 공구 수명은 기존 대비 각각 약 3배, 8배가 늘어났다. 마팔하이테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품 개발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박주석 회장, 2023 지역경제포럼 참석

2023년 12월 18일 박주석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 지역경제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경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논의를 펼쳤다. 박주석 회장은 "IMF 이후 제조업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마팔하이테크는 인력 확보를 위하여 마이스터고와 MOU를 체결, 학기 중에 현장의 제조 기술을 익히게 한 후 독일 연수를 거쳐 채용함으로써 바로 현장 배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포럼 참석자들은 특히 산업단지의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분야와 민간 분야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홍남기 책임매니저, 직무 발명 표창

기술연구소 홍남기 책임매니저가 2024년 7월 1일 직무 발명 표창장을 수여했다.

홍남기 책임매니저는 브러쉬타입 크로스홀 디버링 공구 특허증을 출원하여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해당 특허는 당사의 디버링공구 특허에 대한 경쟁사의 벤치마킹 및 대응을 방어할 수 있어 마팔하이테크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남기 책임매니저는 "표창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 앞으로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마팔하이테크는 직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이를 발현시키는 데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ESG 우수 중소기업 인증서 획득

하이테크가 2023년 11월 16일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인증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2024년 2월 29일 ESG 인증서를 획득했다. ESG 인증은 기업의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글로벌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운영을 보장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하이테크는 이번 심사에서 환경 관리 시스템,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 등 다양한 항목에서 최우수 평가를 획득했다.

이길태 대표이사는 “이번 ESG 인증 획득은 우리가 추진해 온 지속 가능 경영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환경보호를 비롯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SG 인증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물론, 비재무적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글로벌 경쟁에 있어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으며,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추세다. 하이테크는 ESG 인증을 발판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인도 PUNE 공장의 TMS 업체로 선정

D-HITECO가 2024년 현대자동차 인도 PUNE 공장의 TMS 업체로 선정되어 PUNE 지역으로 복귀했다.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공장은 원래 GM의 공장으로서 D-HITECO가 GM과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여 2021년 3월까지 TMS 업무를 맡았던 곳이다. 그



러나 GM의 인도 사업이 종료되고, 공장 매각이 결정되면서 난항에 봉착했다가 2023년 초 현대자동차가 GM 공장을 인수하여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해당 공장은 2025년 5월 양산을 목표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11월부터 장비 설치 및 시운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D-HITECO는 이 일정에 맞춰 TMS 관련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생산 모델은 HMI 및 KIN과 동일한 개선판 카파 1.2로, KIN과의 가공 콘셉트가 유사한 덕분에 높은 시너지가 기대된다. 이번 계약은 2025년 5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 8개월간 유지될 예정이며, 이를 기회로 삼아 인도 현지 업체와의 비즈니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호닝홀더 연계 호닝포켓 지그 개발

세아스는 2023년 5월 호닝홀더의 판매처인 네오오토에서 호닝홀더와 연계되는 호닝포켓 지그 개발 건을 수주했다.

4차에 걸쳐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연계되는 품목으로 확대하여 매출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호닝홀더는 공작기계에서 사용되는 부품으로 절삭 가공 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고, 절삭 효율을 높인다. 세아스는 국내 최초로 호닝홀더를 개발하여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호닝포켓 지그는 호닝홀더와 함께 사용되는 부품으로 절삭 가공 시 정확한 위치와 각도를 유지하여 가공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세아스 관계자는 “이번 호닝포켓 지그 개발은 세아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해 국내 공작기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ne TOGETHER

MAPAL HITECO + 2024 VOL.8



주조공장 건설로 제2의 도약 기틀 마련

NLT가 신규 품목 수주와 소재 자급화를 통한 외형 성장과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하여 주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NLT는 1공장 인근에 4,908평을 매입하고 여기에 1단계로 연건평 1,730평 규모의 공장을 2025년 2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주조공장에서 생산할 품목은 변속기 케이스 및 하우징 가공용 소재로 주조공법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법을 적용한다. 주조공장 건설은 단순 임가공 위주의 사업영역을, 소재를 포함한 고도화된 사업 형태로 발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NLT 역사에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이다. 공사 진행은 파일항타 단계가 마무리되었고, 폐수처리장 기초공사 및 옹벽 타설공사가 끝나 본격적으로 기초 및 철골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내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업체 및 중견업체들이 주조 분야를 외주화시키는 경향이아 이러한 시기에 소재 분야로 진출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 토대가 될 것이다.



하천 정화 활동 통해 ESG 경영 실천

지난 9월 30일 NLT 임직원 10명은 성연천을 찾아 쓰레기 수거, 수중 쓰레기 제거, 하천 주변 정비 등 다양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근 하천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ESG 친환경 경영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회가 되었다. NLT는 앞으로도 하천 정화 활동을 지속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설 것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다양한 ESG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코넥·DL모터스로부터 대규모 사업 수주

NLT가 소재와 가공 공정 여러 분야에서 핵심 부품을 수주함으로써 성장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NLT는 코넥으로부터 TMED 모터하우징 연간 18만 대, TMED, 모터하우징 연간 26만 대, 램다3 체인커버 연간 22만 대 생산을 수주했으며, DL모터스에서 세타3 실린더블록 연간 24만 대 생산을 수주했다. 이는 10년에 걸쳐 생산하는 대규모 수주로 NLT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LT는 물량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소재 공장과 가공 공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NLT의 대규모 수주와 사업 다각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해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임직원 중 평소 모범이 되어 회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큰 직원을 우수사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시상식을 통해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상패와 상금 일백만 원을 전달하였다.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모범이 된 2023년 우수사원을 소개한다.

우수사원 수상자

-  **심광일** 책임매니저
(주)마팔하이테크 경인영업소
-  **방기랑** 책임매니저
(주)마팔하이테크 구매팀
-  **김종윤** 사원
(주)마팔하이테크 생산1팀
-  **지기환** 매니저
(주)하이테크 양산1실
-  **정남수** 책임매니저
(주)하이테크 양산2실

우수제안상 수상자

-  **김진성** 매니저
(주)하이테크 TMS 미션 지곡 센터 
-  **이상목** 매니저
(주)하이테크 Z-HiTECO 
-  **오진우** 책임매니저
(주)하이테크 TMS/위아 서산2 
-  **박순상** 책임매니저
(주)하이테크 D-HiTECO



우수팀 수상자 | 경인영업소

- | | | |
|---|---|---|
|  심광일 책임매니저
(주)마팔하이테크 경인영업소 |  김진홍 책임매니저
(주)마팔하이테크 경인영업소 |  김윤환 책임매니저
(주)마팔하이테크 경인영업소 |
|  변상수 책임매니저
(주)마팔하이테크 경인영업소 |  이두겸 책임매니저
(주)마팔하이테크 경인영업소 |  강승주 책임매니저
(주)마팔하이테크 경인영업소 |
|  이재훈 책임매니저
(주)마팔하이테크 경인영업소 |  전수연 매니저
(주)마팔하이테크 경인영업소 | |



Special Day

회장님 메시지



삶은 우리에게 다채로운 순간들을 선사한다.
이러한 순간들은 때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들의 특별한 순간들을
되돌아보자.

마팔하이테크를 빛나게 만든 순간들

52

우리만의 특별한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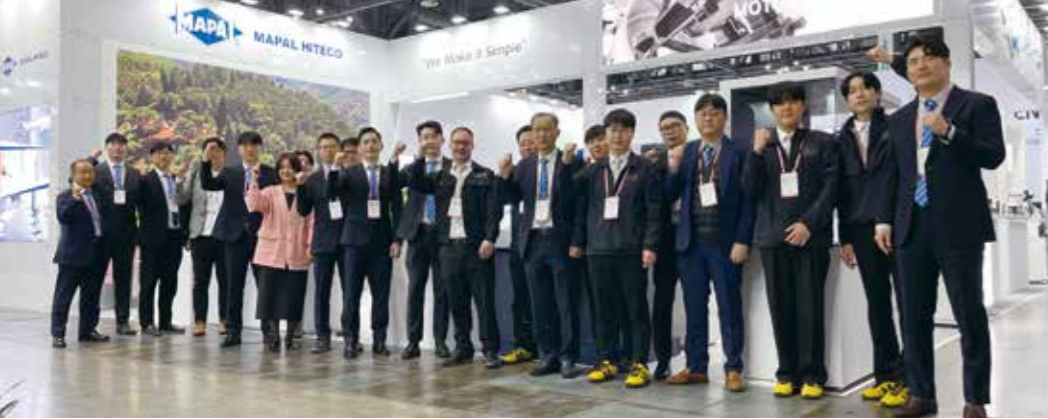
우리만의 축제 마팔하이테크 & 하이테크 2023 MT

마팔하이테크는 지난 2023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박주석 회장을 비롯한 마팔하이테크 임직원과 하이테크 그룹사 주요 임원까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마팔하이테크 MT'를 개최했다.

충북 보령 비체펠리스에서 개최된 이번 MT에서는 본부별 모임을 시작으로 직원 간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이후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된 송년회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1부를 채웠다. 다음날 2부에서는 2023년 입사자 소개를 시작으로 우수사원 시상, MT 영상 시청, 그룹사 실적 및 사업계획 발표, 박주석 회장의 인사말 순서로 진행됐다. 박주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고생한 임직원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함께 성장할 내년을 위한 독려의 자리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창립 이래 최고 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라고 격려했다.

이날 2023년 우수사원으로 경영관리본부 방기량 책임매니저, 영업본부 심광일 책임매니저, 생산본부 김종윤 사원이 선정됐고, 이들에게는 상금 백만 원이 수여됐다.





2024 마팔하이테크 영업본부 워크숍

마팔하이테크 영업본부는 2024년 7월 5일부터 6일까지 충남 예산 리스스플라스에서 '2024 마팔하이테크 영업본부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희중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을 포함한 영업본부 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째 날에는 실장들이 솔선수범하여 영업 노하우와 신제품 교육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시간이 끝난 후 교육 소감을 나누는 자리에서 개발영업팀 양진영 매니저가 대표로 소감을 발표했다. 그는 "이 교육을 통해 신입사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물론 선배님들의 경험을 통해 영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 유익했다"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만찬과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이 이뤄졌다. 둘째 날에는 직원들의 체력 증진과 동료애를 다지는 팀별 체육활동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하반기 목표 달성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마팔하이테크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소통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 마팔하이테크 영업본부 워크숍 현장 바로가기



 **우리의 기술력을 피력하는
마팔하이테크, SIMTOS 2024 전시회 성료**

마팔하이테크가 2024년 4월 1일부터 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SIMTOS 2024에 참가해 제품 및 솔루션 전시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SIMTOS 2024에서 마팔하이테크는 'Energy Saving'을 콘셉트로 생산시간과 소비전력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비롯해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 마팔하이테크는 'Energy Saving'을 모토로 한 새 공급사의 신제품을 출품하였는데 특히 유럽 최고의 공작기계 제조업체 중 하나인 엠코(EMCO)의 교육용 장비들과 함께 이탈리아 제라르디(GERARDI)의 제품을 국내 최초로 소개해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마팔하이테크는 앞으로도 SIMTOS 전시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고객들에게 우수한 산업 솔루션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SIMTOS 2024 전시 현장 바로가기



'No!'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올바른 거절의 기술

인간관계는 부탁의 연속이다. 남의 부탁을 일일이 들어주자니 내 시간이 줄어들고 불만도 쌓인다. 하지만 딱 잘라 거절하려면 마음이 불편하고 관계가 틀어질까 봐 두렵다. 모든 상대에게 'YES!'만을 외칠 수 없기에 우리는 거절의 처세술을 배워야 한다.



One TOGETHER

MAPAL HITECO + 2024 VOL.8

미움받을까 두렵다

주말 업무를 대신 처리해 달라는 회사 선배에게, 여름이면 해마다 휴가를 함께 가자는 시댁 식구들에게, 갚지도 않는 돈을 수시로 빌려달라는 친구에게, 오늘도 마음의 도로를 역주행 하며 '좋아요'를 외쳤다.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후회하다 보면 어김없이 밀려드는 감정은 '나는 호구인가'하는 자괴감. '싫으면 싫다고 왜 말을 못해!'는 그저 독백으로 남는다. 우리는 왜 싫으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 기저엔 두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자신을 게으르거나 인정머리 없거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사실 남을 도와 사랑받고 싶은, 착한 마음에는 죄가 없다. 에스맨을 호구로 인식하고 알뜰하게 착취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호구가 진상을 만든다'고 피해자를 탓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이 언제고 선량하기만 한 존재였던가. 타인의 욕구 틀에 자신을 맞추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 에스맨들은 서글프지만, 성악설을 수궁하며 탈출의 기술을 연마할 필요가 있다.

작은 것부터 부드럽게 거절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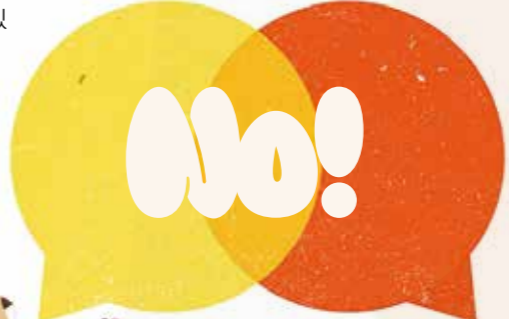
거절해본 적 없는 사람이 'No'라고 단호박처럼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처음부터 샘솟지 않는다. 휴가에 회의를 잡는 상사에게, 늦은 밤에 연락해 일을 처리해달라는 고객사에 칼같이 대응하는 것이 꼭 좋은 방식도 아니다. 거절의 목적은 거절을 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내 성질을 보여주거나 그가 틀렸음을 만방에 선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부드럽게 거절하는 시도를 해보자. 그마저도 어렵다면 즉답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게 꼭 해야 할 일인가, 할 시간은 있는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 얼마나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인가 등을 생각해본 후 가부를 결정짓는다. "김 과장님, 제가 웬만하면 회의에 참석하고 싶은데, 몇 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가는 여행이라 도저히 안 될 것 같네요." 이때 다른 방식으로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면 큰 도움이 된다. "휴가 전에 자료 준비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도움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식으로 덧붙이면 거절이 독백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거절의 짝공, 상대방을 향한 희망과 연대

거절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는가. 처음이 어렵지, 그다음은 쉽다. 나의 거절을 두고두고 생각할 만큼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다. 모든 결정의 기준은 나이며, 내가 즐거워서 돕는 것일 때는 돕는 게 맞다. 거절의 테크닉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거절을 단순히 부정 표현으로만 생각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여긴다면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거절의 심리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손으로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되, 또 한 손으로는 희망과 연대의 손을 내미는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 "제가 당신(부모님, 선생님, 상사)과 함께 잘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리저리 말아주십시오. 혹은 이렇게 해주십시오'처럼 말이다. 단순히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연대와 희망의 뜻이 담긴 여지도 함께 전달하자.

상대방의 메시지와 나의 메시지를 분리해 거절하라

상대방의 메시지가 아닌 나의 메시지로 거절하는 기술도 있다. 불쾌함을 표출하며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특정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십니까"라고 말하는 대신 "○○○께서 '...(상대의 말을 그대로 인용)'라고 말씀하셔서 불쾌합니다"라고 말하며, 상대의 말, 행동과 그것이 내게 끼치는 영향(감정)을 분리하자. 늘 상대방에게만 신경을 쓰고,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다 보면 이를 놓칠 수 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상대방에게 거절도 제대로 할 수 있다.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한 거절의 기술은 외운다고 저절로 구사되지 않는다. 친절을 추동하는 힘은 자발적 선택에 의한 내면의 기쁨이어야 하며, 사고와 행위의 주체는 언제나 나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는 누구에게나 한정돼 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 묘법. 이제는 'No'라고 외칠 수 있겠는가.



거절이 어려운 착한 사람 콤플렉스 테스트

- 의사결정을 할 때 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
- 부탁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
- 모든 사람을 믿을만하다고 여긴다.
- 나쁜 기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 쉽게 상처받는다.
- 상대방이 화를 내면 대처하지 못한다.
- 눈치를 많이 본다.
- 할 말을 못해서 답답하다.
- 항상 손해보는 느낌이다.

9가지 항목 중 5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착한 사람 콤플렉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 EBS 세상의 모든 법칙 '나는 어쩌다가 에스맨이 되었을까?'

고마운 마음이 도착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한 후에 주지 않는 것과 같다. 때로는 말보다 글이 전하는 감동이 더 큰 법. 마팔하이테크인들이 동료에게 전하는 훈훈한 메시지를 소개한다.

든든한 선배, 자금팀 고은영 책임매니저님에게

엔엘티에서 마팔하이테크로 발령을 받고 근무하는 지금.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제가 이 회사에 적응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신 고은영 책임매니저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발을 내디딜 때의 떨림과 두려움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러나 고은영 책임매니저님이 계셔서 큰 힘이 되었어요. 처음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낯선 분위기로 느낀 불안한 마음은, 마치 넓고 깊은 바다에 뛰어든 듯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고은영 책임매니저님이 언제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어요. 그 배려 덕분에 새로운 환경과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부담감도 빨리 떨어낼 수 있었답니다. 시스템과 업무를 파악하고,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귀찮을 법도 한데 항상 따뜻하게 알려주시는 그 순간순간들이 모두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한 팀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성장해 나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은영 책임매니저님과 함께 일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고은영 책임매니저님 덕분에 자금팀은 저에게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닌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금팀 박호종 책임매니저 드림

언제나 친절하신 공정관리팀 김형식 책임매니저님에게

제가 생산2팀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생산실에서 일하게 되면서 모르는 것도 많고, 곤란한 상황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형식 책임매니저님에게 사소한 것부터 어렵고 난처한 질문을 수없이 드렸는데, 짜증 한 번, 화 한 번 내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친절하게 알려주셨지요. 저에게는 처음이라 낯설고 어려운 업무여서 부담이 컸는데, 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 또한 동료에게 업무를 알려주거나 협업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하고 올바른 것인지 책임매니저님을 보면서 배워가고 있어요. 책임매니저님! 현장에서 항상 바쁘게 움직이시고, 출근수범하시는 데 그럴 때일수록 더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언제나 감사드려요!

생산실 박수진 매니저 드림



존경하는 설계팀 주정환 책임연구원님에게

저는 항상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만, 감정 기복이 있어 잘 지키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정환 책임연구원님과 업무를 하다 보면 이 다짐을 돌아보게 됩니다. 수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설계팀과 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어려운 일을 의뢰하기도 하고, 여러 문의로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정환 책임연구원님은 언제나 친절하고, 성실성의껏 대담해 주세요. 재촉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경우가 더 많은 데에도 말이지요. 핑그린 표정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짜증 섞인 말투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항상 상세하게 설명해주실 뿐만 아니라 문의로든 내용 이상의 해결 방안까지 조언해주셔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한 번도 대강 넘기는 일이 없으세요. 설계팀이 야근도 잦은 걸로 알고 있는데,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뛰어나신 걸까요? ^^ 모두가 고된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같은 향기(?)의 언어가 나오지 않아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친절한 태도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게 되고, 저도 주정환 책임연구원님처럼 감정을 잘 다스리고, 언제나 기분 좋게 응대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주정환 책임연구원님, 언제나 감사드려요. 존경합니다!

구매2팀 김지기 책임매니저 드림

최고의 사수, 원희정 매니저님께!

원매님, 안녕하세요. 김매입니다! 글로 인사드리는 게 아주 많이 어색하지만,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입사 초기에는 매니저님이 마냥 좋아서 뒷모습만 봐도 웃음이 나곤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매니저님이 계셨기에 행복한 회사생활이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넘치는 업무로 늘 정신없이 바쁜 인사기획팀에서 매니저님은 제게 기댈 수 있는 어깨 같은 존재이십니다! 고민에 빠져있을 때면 어떻게 아셨는지 조용히 다가오시고는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지쳐 보일 때면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김매님~' 하고 다정히 불러주시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땐 조심스러우면서도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비슷한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제 친구들 모두 제가 원 매니저님 같은 선배와 함께한다는 걸 부러워합니다. 제가 원 매니저님을 첫 사수로 만난 건 제가 누리는 최고의 복지이자 인생의 행운입니다. 저도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할게요. 조만간 우리 같이 치킨 파티해요!

인사기획팀 김소영 매니저 드림



사람을 성장시키는 토양, 겸손

책에서 겸손을 배우다

2024년 마팔하이테크의 핵심가치는 관심과 배려, 그리고 겸손이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다. 우리에게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겸손이 필요하다. 한자로 겸손할 겸(謙)은 말씀 언(言)과 겸할 겸(兼)을 결합한 글자다. 겸(兼)은 벼 다발을 손에 쥐고 있는 형상으로 '아우르다' '포용하다'라는 뜻을 지닌다. 겸손할 손(遜)은 '후손에 전하다'의 뜻을 함께 지녔으니 대를 잇는 가르침을 의미한다. 다양한 책을 통해 겸손을 배워보자.

겸손이 현명한 삶의 방식이라 말하는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저자 마티아스 뉘케 출판사 퍼스트펍권

더 성공해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하고, 더 욕망해야 하고, 더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난무하는 시대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내느라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역설적으로 절제된 말과 행동, 고요함과 평온함이 더 절실히 그리워지고, 더 강력하게 다가온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는 모든 것이 과하게 요구되고, 요란하게 소비되는 시대에 '더 현명한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자기계발서이다. 이 책에는 기분은 선택할 수 없어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삶과 행복 등에 대한 통찰이 담겼다. 저자인 마티아스 뉘케 박사는 독일의 언론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문학과 커뮤니케이션 과학, 심리학 등을 두루 공부했다. 저자는 누구나 공감하게 만드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겸손한 태도'가 발휘하는 힘을 매우 유쾌하게 펼쳐 보여준다. 지금 이 시대의 풍경과 의미를 날카롭게 짚어내는 것은 물론 문화사적 통찰, 심리학적 측면과 관계의 기술까지 아우르며 겸손에 관해 공감과 사색의 폭을 넓혀준다.



겸손을 다방면으로 심층 분석한 『겸손의 힘』

저자 대릴 반 통계렌 출판사 상상스퀘어

겸손을 실용적이고 철학적으로 심층 분석한 책이다. 겸손이 어떻게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의 강점과 한계를 더욱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지, 성공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연구와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저자인 대릴 반 통계렌은 겸손의 과학을 이끄는 대표적인 연구자로 호프칼리지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이자 프로스트 사회과학 연구센터 소장으로서 역임 중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 겸손이 필요한 이유를 다양한 근거와 설득력 있는 논리로 설명한다. 겸손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가치를 일깨우며, 겸손에 새로운 브랜딩을 제시하고 있다. 겸손이라는 미덕은 그동안 과소 평가되어 심리학에서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 겸손은 측정하기가 어렵고, '자기 강화'를 중요시하는 서구의 수많은 개인주의적 문화권에서는 겸손을 높이 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겸손을 다룬 책들 대부분이 종교 지도자 혹은 종교인으로서의 덕목 위주로 다루었다. 반면 이 책은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대중을 대상으로 쓰였고, 저자가 오랫동안 연구한 겸손의 장점과 겸손을 기르는 방법을 다방면의 연구와 풍성한 예화로 깊이 있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지나간 인생을 바라보는 겸손한 시선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출가분하다』

저자 박경리 출판사 다산북스

대하소설 '토지'를 비롯해 '김약국의 딸들'과 같은 굵직한 작품을 남긴 소설가 박경리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을 것이다. 그녀는 생전 200편에 가까운 시를 남겼을 만큼 시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1955년 소설가 김동리의 추천을 받아 단편 '계산'으로 등단했지만, 세상에 발표한 첫 작품은 '바다와 하늘'(1954년)이라는 시였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출가분하다』는 박경리가 타계한 후 출간된 시집으로, 생전에 이 시집 출간을 위해 60편의 시를 준비하였으나 건강이 안 좋아져 60편을 미처 채우지 못하고 2008년 5월 5일 타계했다. 그가 돌아본 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책인 셈이다. 박경리가 쓴 시는 소설에서는 대체로 보지 못했던 담담한 고백을 담아내고 있어 지나온 인생을 바라보는 '박경리'라는 거장이자 노인 '박금이(박경리 본명)'의 겸손한 시선이 느껴진다.



흐르는 시간 앞에 겸손해지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저만치 혼자서』

저자 김훈 출판사 문학동네

소설가 김훈이 2022년에 내놓은 두 번째 단편 소설집이다. 『칼의 노래』 『현의 노래』 『남한산성』 등 명작 장편들을 떠올렸을 때 그의 단편은 장편에 비해 일상적인 인물과 사건을 주로 다룬다. 그는 이 책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표정을 묵묵하게 그렸다. 작가는 세월이 지나니 견딜 수 있게 된 일들과 갈수록 드러내기 어려워지는 연약한 감정, 흐르는 시간 앞에 겸손해지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한다. 삶을 문학으로 옮길 때 작가가 갖추는 겸허한 태도는 소설집의 말미에 수록한 '균말'에 드러나 있다. '균말'은 김훈으로서의 이례적으로 길게 적은 작가의 말이다. 그는 이 글에서 새 단편들을 작가의 자리가 아닌 이웃의 자리에서 썼노라고, 그럼에도 문학의 언어로 삶의 언어를 이겨낼 도리가 없었노라고 밝힌다. 감정을 생략한 간단명료한 문장이 트레이드마크인 작가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을 겸손하게 바라보려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아름다운 우리 여름

2024 하이테크그룹 여름 포토 콘테스트

2024년 8월 첫째 주, 하이테크그룹 가족들은 어디서 무얼 했을까?
가족과 동료, 친지들과 함께 애정 가득한 시간을 보낸 직원들의
사진을 둘러보며, 여름 추억을 떠올려 보자.



Finding fresh air
Nguyen Thuy Linh 사원 MH-V



최우수상

발리에서 생긴 일
조규봉 매니저 앤엘티 재경팀

우수상



이걸 안뵈어요?

이주현 매니저 영업기획팀, 오윤정 연구원
설계팀, 유미화 사원 기술영업1팀,
이지은 연구원 기술연구소



여자친구와 미래 조카들 윤재한 사원 하이테크 MOT팀

ONE TOGETHER

MAPSAI, HITECO + 2024 VOL.8

참가작 →



홍남기 책임연구원 설계팀



유종민 책임매니저 구매1팀



오진규 책임매니저 개발영업팀



구명규 책임매니저 개발영업팀



김승연 책임매니저 구매1팀



김형돈 이사 개발영업팀



박해준 매니저 개발영업팀



임승태 책임매니저 회계팀



김영민 책임매니저 개발영업팀



김기철 책임매니저 구매1팀



김준영 책임매니저 개발영업팀



박기훈 이사 개발영업실



양진영 매니저 개발영업팀



박해진 매니저 개발영업팀



김우성 책임매니저 개발영업팀



박진성 책임연구원 신사업팀





우승작



강승주 책임매니저 경인영업소



엄세웅 책임매니저 창원영업소



왕주영 이사 기술영업1팀



이승노 책임매니저 영업기획팀



김영만 매니저 창원영업소



우정철 책임매니저 엔엘티 관리지원팀



노윤현 책임매니저 기술영업1팀



윤민영 매니저 창원영업소



김소영 매니저 인사기획팀



김상노 책임매니저 창원영업소



심광일 책임매니저 경인영업소



박진우 책임매니저 SE2팀



Do Thi Anh Tuyet 사원 MH-V



이범석 책임매니저 기술영업2팀



주정열 매니저 SE2팀



김현빈 매니저 경인영업소



최종열 책임매니저 인사기획팀



Nguyen Phuong Nam 사원 MH-V



조성대 책임매니저 하이테크 자곡센터



윤태은 책임매니저 창원영업소



정수민 책임매니저 창원영업소



주득근 매니저 SE1팀



우수현 책임매니저 울산영업소



염보라 매니저 SE2팀



박대식 책임매니저 기술영업1팀



김유나 매니저 중부영업소



백승우 매니저 경인영업소



소병훈 매니저 T/0팀



Dang Quoc Vuong 사원 MH-V



김창진 책임매니저 하이테크 TMS기술영업팀



원희정 매니저 인사기획팀



정형길 책임매니저 MH-V



최승진 책임매니저 엔엘티 관리지원팀





마팔하이테크



- 이한솔 매니저_기술영업1팀 2023. 10. 10
- 오윤정 연구원_설계팀 2023. 11. 06
- 이동현 매니저_중부영업소 2023. 11. 06
- 김부민 매니저_SE2팀 2023. 12. 04
- 김민서 사원_QA팀 2024. 01. 02
- 김철현 사원_생산2팀 2024. 01. 02
- 정재훈 사원_생산1팀 2024. 01. 02
- 이동영 사원_생산1팀 2024. 01. 02
- 변지호 사원_생산1팀 2024. 01. 02
- 김태영 사원_생산1팀 2024. 01. 02
- 한준서 사원_생산2팀 2024. 01. 02
- 강상호 책임매니저_IT운영팀 2024. 01. 24
- 염보라 매니저_SE2팀 2024. 02. 05
- 남진성 사원_생산1팀 2024. 03. 04
- 김지웅 매니저_SE1팀 2024. 03. 04
- 이성민 책임매니저_B2X팀 2024. 03. 11
- 양진영 매니저_개발영업팀 2024. 03. 11
- 소병훈 매니저_T/O팀 2024. 03. 11
- 백승우 매니저_경인영업소 2024. 03. 11
- 이창중 매니저_T/O팀 2024. 04. 01
- 곽광호 사원_QA팀 2024. 04. 03
- 성낙천 매니저_관리팀 2024. 05. 20
- 김미정 사원_생산2팀 2024. 05. 20
- 서정현 사원_생산1팀 2024. 05. 22
- 조승현 매니저_관리팀 2024. 05. 23
- 조중수 매니저_구매2팀 2024. 06. 10
- 변진영 매니저_생산관리팀 2024. 06. 10
- 노요한 매니저_중부영업소 2024. 06. 10
- 신지선 매니저_생산관리팀 2024. 07. 01
- 박경준 사원_생산2팀 2024. 07. 01
- 김현빈 매니저_경인영업소 2024. 07. 15
- 정수진 사원_QA팀 2024. 08. 08
- 강민구 책임매니저_SE2팀 2024. 08. 12
- 정재희 매니저_IT운영팀 2024. 08. 19
- 배 종 주임_관리팀 2024. 08. 19
- 김옥순 사원_조리지원 2024. 08. 27
- 노원남 실습생_생산1팀 2024. 08. 27
- 박준현 실습생_생산1팀 2024. 08. 27
- 진현성 실습생_생산1팀 2024. 08. 27
- 서우현 실습생_생산1팀 2024. 08. 27
- 최정호 책임매니저_T/O팀 2024. 09. 02
- 조찬웅 매니저_경인영업소 2024. 09. 02
- 최성봉 책임매니저_SE2팀 2024. 09. 23
- 배은우 사원_QA팀 2024. 09. 23
- 민석기 매니저_공정관리팀 2024. 09. 23
- 김 빈 사원_생산2팀 2024. 09. 23
- 이재석 매니저_중부영업소 2024. 09. 23

하이테크



- 신설아 매니저_TMS/위아서산1 2023. 10. 04
- 정덕용 책임매니저_A. HiTECO 2023. 10. 05
- 양현석 사원_TMS/엔엘티 2023. 10. 12
- 김 원 사원_TMS미션팀 2023. 10. 19
- 안승환 사원_MOT팀 2023. 11. 08
- 윤재한 사원_MOT팀 2023. 11. 08
- 김동현 매니저_구매1팀 2023. 12. 04
- 김인규 책임매니저_G. HiTECO 2023. 12. 11
- 박민균 매니저_지원팀 2024. 01. 02
- 김지기 책임매니저_구매2팀 2024. 01. 15
- 민홍식 상무_MMS실 2024. 01. 22
- 신정현 사원_TMS미션팀 2024. 02. 22
- 이재용 사원_MOT팀 2024. 03. 04
- 이상배 사원_TMS/위아서산1 2024. 03. 18
- 김태진 사원_MOT팀 2024. 03. 18
- 정순욱 사원_TMS미션팀 2024. 03. 20
- 장상수 매니저_MOT팀 2024. 03. 25
- 정태희 사원_TMS미션팀 2024. 04. 01
- 서진선 매니저_MOT팀 2024. 04. 01
- 최현석 사원_MOT팀 2024. 05. 01
- 이태환 책임매니저_MMS팀 2024. 05. 20
- 문용주 사원_MOT팀 2024. 06. 03
- 김경식 매니저_MMS팀 2024. 06. 24
- 김연태 부사장_하이테크 2024. 07. 01
- 강승민 사원_TMS/엔엘티 2024. 07. 01
- 이남수 책임매니저_G. HiTECO 2024. 07. 05
- 권영학 이사_G. HiTECO 2024. 07. 05
- 서중철 책임매니저_MMS팀 2024. 07. 22
- 김현진 책임매니저_MMS팀 2024. 08. 05
- 황정식 사원_TMS/위아서산2 2024. 08. 26
- 최정미 매니저_MMS팀 2024. 09. 02
- 김연택 책임매니저_MMS팀 2024. 09. 04
- 김진수 매니저_TMS기술영업팀 2024. 09. 25

엔엘티



- 김준영 사원_가공생산팀 2023. 10. 16
- 오호균 부사장_공장장 2023. 10. 23
- 신동혁 조장_가공생산팀 2023. 11. 01
- 응웬 반 남 사원_품질관리팀 2023. 11. 20
- 권이영 주임_보전팀 2023. 12. 11
- 이보연 사원_종합생산팀 2023. 12. 27
- 김복수 사원_관리지원팀 2024. 01. 01
- 김동완 책임매니저_종합생산팀 2024. 01. 08
- 김진욱 반장_소재생산TFT 2024. 02. 19
- 김창완 조장_보전팀 2024. 02. 19
- 권승현 조장_품질관리팀 2024. 02. 26
- 권태은 매니저_관리지원팀 2024. 03. 09
- 홍호진 책임매니저_품질관리팀 2024. 03. 18
- 서광원 책임매니저_소재생산TFT 2024. 03. 21
- 김민수 책임매니저_품질관리팀 2024. 06. 17
- 응웬 황 엔 사원_가공생산팀 2024. 07. 03
- 육현권 사원_종합생산팀 2024. 08. 12
- 헨 유이릿 사원_가공생산팀 2024. 09. 11
- 임준혁 매니저_관리지원팀 2024. 09. 23
- 이기숙 사원_관리지원팀 2024. 09. 27

템즈



- 배하열 책임매니저_HWT(HYUNDAI WIA TURBO) 2024. 02. 01
- 김중호 사원_HWT(HYUNDAI WIA TURBO) 2024. 02. 01
- 심재원 사원_HWT(HYUNDAI WIA TURBO) 2024. 02. 01
- 유순진 사원_HWT(HYUNDAI WIA TURBO) 2024. 02. 01
- 최홍철 사원_HWT(HYUNDAI WIA TURBO) 2024. 02. 22
- 문준영 사원_HWT(HYUNDAI WIA TURBO) 2024. 04. 01

세아스



- 손계철 사원_생산팀 2024. 01. 18
- 유진식 책임매니저_품질관리팀 2024. 02. 01
- 허 윤 사원_생산팀 2024. 03. 18
- 김남훈 사원_생산팀 2024. 04. 22
- 박일서 사원_생산팀 2024. 06. 03



나이키

사람에게는 세 가지 키가 있다.
 선키, 얇은키 그리고 몇 살인지 따지는 나이키.
 그러나 신체검사를 할 때도 나이키는 재지 않는다.
 나이와 능력은 비례하지 않기 때문
 그래서 나이가 몇이든 지금 시작하라고,
 Just do it.

카피라이터 정철의 영감달력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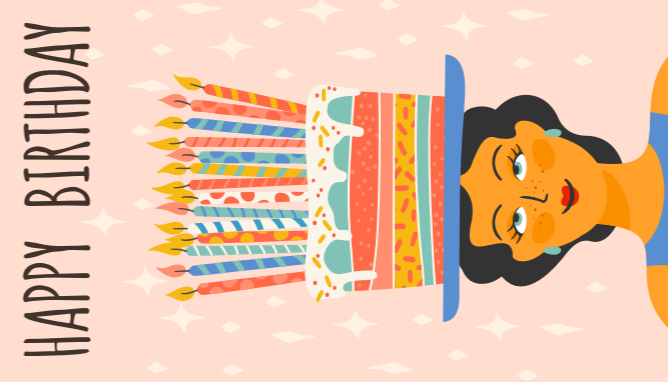
MESSAGE CARD



힘내 세요!



정유민



HAPPY BIRTHDAY



이정우님
안녕하세요!

동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 보아요!
오늘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시간 좀 내주세요!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내가
좋으면

나도
좋은걸

하상욱 단편시집 '날씨'

MAPAL HITECO

33rd
ANNIVERSARY



고객.직원.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기업 마팔하이테크

혁신적인 기술과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탄생한
마팔하이테크의 제품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직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합니다.

MESSAGE CARD

MAPAL HITECO

MAPAL HITECO

MAPAL HITECO

MAPAL HITECO

MAPAL HITECO

MAPAL HITECO

